


國立政治大學韓國語文學系

碩士論文

The logo of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is a circular emblem. It features a central stylized character '政' (Cheng) surrounded by a five-petaled flower-like shape. The outer ring of the emblem contains the university's name in Chinese characters '國立政治大學' at the top and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at the bottom.

音節結構差異所導致之  
臺灣韓語學習者發音問題研究

研究生：傅子杰 撰

指導教授：朴炳善

中華民國 108年 10月



## 中文摘要

因為韓流的崛起近年來臺灣的韓語學習者不斷增加，且如果仔細觀察一些指標可以發現臺灣的韓語學習者對自己的韓語能力有相當的要求。臺灣的韓國語文能力測驗(TOPIK)的報名人數呈現每年逐漸上升的趨勢；並且以考試人口占總人口的比例來推算的話，台灣有全世界最高的韓國語文能力測驗報考率。可以從以上的指標得知臺灣的學習者除了對韓語學習的熱情逐年上升之外，也可以知道臺灣的韓語學習者們對自己的韓語實力有一定的要求。為了滿足學習者們這樣的需求，臺灣需要更有系統且更在地化的韓語教學體系。

不論在任何語言的學習過程中，發音都是學習者第一個接觸到的部分，同時也是學習者會碰到的第一個關卡。由於各語言所使用的音位不同，所以學習者在發音的學習過程中一定會碰到不熟悉的發音，這類發音往往也會成為學習者的學習障礙。

即便已經有許多學者進行了韓文音位及中文音位的發音比較研究，但中文母語者於學習韓語發音時依然面臨著許多困難及發音錯誤。那是因為韓語的發音並不是以單一音位為單位，而是以音節為單位進行發音。音節是由多個音位組成，並且音位與音位的組合受到制約的限制。因為這些制約，學習者若碰到在自己母語中沒有的音節時會有發音困難；甚至在目標語言與學習者母語有著完全相同音位結構的情況下，也可能會因為音節組成的制約導致學習者無法正確發音。

本篇論文便是針對音位與音位的組合制約，即音節結構的差異對臺灣韓語學習者發音學習的影響進行研究，希望透過研究結果可以找出臺灣韓語學習者較不熟練的發音。本論文將透過比較韓文及中文的音節結構和音位與音位的組合制約找出其中差異，並以此差異為基礎預測臺灣韓語學習的發音問題。最後再針對該音節們進行臺灣韓語學習者之發音實驗，以確認臺灣韓語學習者實際的發音困難。

關鍵字：韓語教育、中文、韓文、發音教育、音節

## Abstract

The rise of the Korean wave has led to a continual increase i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in Taiwan; some indicators have revealed that these learners exhibit a certain level of demand for fluency in Korean. Therefore, a systematic and localized Korean teaching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Taiwan.

Korean language learners with Mandarin as their mother language are faced with numerous challenges and mispronunciation no matter how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phonemes and Mandarin phonemes. This is because in Korean, a pronunciation unit is constituted by a syllable rather than a single phoneme. A syllable comprises multiple phonemes, the combination of which is limited by specific constraints. Consequently, Korean language learners are bound to be challenged by syllables that do not exist in their mother languages; even if the target language has a phonemic structure completely identical to that of the mother language, the difference in their phoneme combinations can prevent learners' correct pronunciation in the target language.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straints in phoneme combinations; that is, this paper discusses the effect of the phonemic structur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Mandarin on Taiwanese people's Korean lear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ypes of Korean pronunciation that are relatively unfamiliar to Taiwanese learners.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Mandarin regarding their syllable structures and constraints in phoneme combinations will be examined to predict the pronunciation problems Taiwanese learners encounter in Korean learning. Finally, a pronunciation experiment will be conducted with these learners on these problematic Korean syllables to confirm the actual difficulties the learners encounter in Korean pronunciation.

Key words: Korean Education, Chinese, Korean, Pronunciation Education, Syllable

# 목차

I. 서론.....	1
1. 연구 동기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2.1 한·중 음소 대조의 연구 현황.....	3
2.2 한·중 음절 구조 대조의 연구 현황.....	4
2.3 한·중 음소 결합 제약 대조의 연구 현황.....	7
3. 연구 내용.....	9
3.1 연구 대상.....	9
3.2 연구 구성.....	10
II.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체계.....	12
1. 한국어의 음절 체계.....	12
1.1 한국어의 음소 체계.....	12
1.2 한국어의 음절 구조.....	16
1.3 한국어의 음소 결합 제약.....	18
2. 중국어의 음절 체계.....	19
2.1 중국어의 음소 체계.....	19
2.2 중국어의 음절 구조.....	24
2.3 중국어의 음소 결합 제약.....	26
3.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체계 대조.....	28
3.1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소 체계 차이.....	28
3.2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차이.....	29
3.3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소 결합 제약 차이.....	29
III.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실태 조사.....	33
1. 연구 음절 범위.....	33

1.1 연구 음소 범위.....	33
1.2 발음 오류 음절 예측.....	34
2. 실험 방법.....	43
2.1 조사 어휘 목록.....	43
2.2 실험 대상 및 방법.....	47
3. 조사 결과.....	49
3.1 발음 오류 분포 경향.....	49
3.2 유형별 발음 오류 분포 경향.....	50
IV.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결과 분석.....	53
1. 음절 구조 제약 오류.....	53
1.1 모음의 음절 구조 제약.....	53
1.2 자음의 음절 구조 제약.....	54
2. 음소 결합 제약 분석.....	56
2.1 자음 및 활음과 모음의 결합.....	62
2.2 모음과 비음 자음의 결합.....	76
V. 결론.....	79
참고문헌.....	84

## 표 목차

<표 1> 박나영(2010)과 이선(2014)의 조사 결과.....	8
<표 2> Zhang Jian(2018)의 조사 결과.....	8
<표 3> 한국어의 자음 체계.....	13
<표 4> 한국어의 단모음 체계.....	14
<표 5> 한국어의 이중모음 체계.....	14
<표 6> 실제 발음의 한국어 단모음 체계 .....	15
<표 7> 한국어의 음절 유형.....	17
<표 8> 한국어의 음절 구조 결합 제약.....	19
<표 9> 중국어의 자음 체계.....	21
<표 10> 중국어의 단모음 체계.....	22
<표 11> 중국어의 복모음 체계.....	24
<표 12> 중국어의 음절 유형.....	25
<표 13> 중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	26
<표 14> 중국어의 성모와 운모 결합 양상.....	27
<표 15> 중국어 음소의 음운자질.....	28
<표 16> 한·중 자음과 모음의 결합 양상 대조.....	31
<표 17> 활음과 모음의 결합 양상 대조.....	31
<표 18> 모음과 비음 자음의 결합 양상 대조.....	32
<표 19> 한국어와 중국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음소 목록.....	33
<표 20> 발음 조사 음절 목록(음절 구조 제약).....	34
<표 21> 양순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조.....	35
<표 22> 치경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조.....	37
<표 23> 경구개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조.....	38
<표 24> 연구개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조.....	39
<표 25> 성문(연구개)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조.....	40

<표 26> 조사 음절 목록(자음과 모음의 결합 제약).....	41
<표 27> 활음과 모음 결합의 대조.....	41
<표 28> 조사 음절 목록(활음과 단모음의 결합 제약).....	41
<표 29> 모음과 비음 자음 결합의 대조.....	42
<표 30> 조사 음절 목록(모음과 비음 자음의 결합 제약).....	43
<표 31> 조사 어휘 목록.....	47
<표 32> 조사 대상자 정보.....	49
<표 33> 발음 오류율.....	49
<표 34> 음운 환경별 발음 오류율 .....	50
<표 35> 음절 구조 제약 유형별 발음 오류율.....	51
<표 36> 음소 결합 제약 유형별 발음 오류율.....	51
<표 37> 음절 구조 차이(모음)로 인한 발음 오류 양상.....	53
<표 38> 음절 구조 차이(자음)로 인한 발음 오류 양상 .....	55
<표 39>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 음절과 민남어 음절 대 조.....	58
<표 40> 민남어 능력별 발음 오류율.....	59
<표 41> 양순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63
<표 42> 치경 파열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 류 양상.....	64
<표 43> 치경 마찰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 류 양상.....	65
<표 44> 치경 비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67
<표 45> 치경 유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68



<표 46> 치경경구개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69
<표 47> 경구개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70
<표 48> 성문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71
<표 49> /n, tɛ, tɛ <sup>h</sup> , k, k <sup>h</sup> , g/ + /wi, wɛ/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	73
<표 50> /wi/와 /wɛ/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	74
<표 51> 활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75
<표 52>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 음절과 민남어 음절 대조(활음+단모음).....	76
<표 53> 모음과 비음 자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	77



# I. 서론

## 1. 연구 동기 및 목적

본 연구는 대만인 한국어 학습의 발음 교육을 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차이에 의한 발음 오류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대만은 지속적인 한류 열풍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진경지(2017)에 따르면 2016년 10월 대만에서 실시한 제48회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자 수는 7,210명이었으며 대만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사이트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2018년 총 응시자 수가 10,460명으로 2016년보다 약 3,000명 가량 늘었다<sup>1</sup>. 또한, 해당 사이트의 공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시험 응시자 수가 이미 6000여 명을 넘어섰기에 2018년 총 응시자 수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매년 응시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응시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박병선(2016)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만 인구 대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대만인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에 걸맞은 완벽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확한 발음이 그대로 굳어지기 쉽기 때문에 초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명숙(2011)에 따르면 한국어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하고 2000년대에 들어 연구자에게 관심을 끌며 연구의 양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연구의 영역이 시기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분절음, 초분절음, 음운규칙, 음운 현상 위주로 연구해 왔다<sup>2</sup>. 또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로 권경근(2016)이 있다. 권경근(2016)에 의

<sup>1</sup> 2017년 이전에 대만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은 1년에 한 번(10월)만 실시하였고 2017년부터 1년에 두 번(4월, 10월)씩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sup>2</sup> 필자가 정명숙(2011)에서 제시한 표를 정리하여 요약한 내용이다.

시기	교육 항목
2000년 이전	분절음, 초분절음, 음운규칙, 파열음
2000년대 전반	음성, 한자 발음, 억양 규칙, 강세구 억양, 모음, 비음, 파찰음, 유음, 종성, 음절 초성, 유기음화, 경음화, 음절말 자음 관련 음운규칙, 음운규칙 교육 순서

하면 2015년 8월까지 한국어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 논저는 총 666편였다. 그 가운데 분절음 연구는 204편, 초분절음 연구는 54편, 복합적 연구는 216편으로 분절음, 초분절음, 음절구조,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는 총 474편이다. 집계된 결과를 통하여 분절음과 초분절음 연구는 교육법을 제외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분절음을 일일이 정확하게 소리 내는 것이 발음의 기본이지만 이를 통해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음은 분절음의 조합인 음절을 단위로 나타내기 때문에 음절의 관점을 통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언어 현상이 많다. 따라서 발음 교육의 연구 범위는 분절음을 넘어 그 이상의 음운 단위로 분야를 넓혀야 한다.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은 정명숙(2005), 범류(2006), 김용렬(2008), 김지연(2010), 김연이(2011) 등 있는데 일반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와 마찬가지로 분절음, 초분절음, 음운규칙의 교육에 관한 연구에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기존 연구 중에 한국어와 중국어<sup>3</sup>의 음절 구조를 대조하는 연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면 중국어의 음절 구조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대조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원인으로 기존 연구의 결과로 해결하지 못하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음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한편, 기존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중국어권에서의 활발한 방언 사용으로 보고 있다. 중국어권의 지리적 범위가

2000년대 후반	한자 음운 현상, 연음 규칙, 자음 동화, 비음화, /ㄴ/, 경구개 자음, 된소리, 장애음, /ㄱ/와 /ㄴ/, 치조마찰음, 이중모음, 음절, 음절말 공명 자음, 음소의 길이, 자음군, 접속구 경계 억양, 초점 실현 양상, 의문문의 억양, 종결어미의 억양, 유창성, 교육 항목 선정 기준, 교육용 음운규칙 선정 기준, 경음화 규칙의 교육 순서
-----------	--

한국어 발음 교육 항목별 발음 교육 연구 내용의 변천 (정명숙, 2011)

<sup>3</sup> 본고에서 중국어는 Mandarin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위낙 넓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방언도 상당히 다양하다. 중국어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언 중에 표준 중국어의 음절 체계와 상이한 방언도 드물지 않다. 따라서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조사하려면 지역을 단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체계를 대조하여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발음하기가 어려운 음절을 찾고 그러한 음절에 대한 대만인 학습자의 실제 발음 오류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선행 연구 검토

한국과 중국어권 나라의 교류가 밀접해지면서 한·중 언어의 대조에 관한 연구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한 연구 중에도 한·중 발음의 대조 연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한·중 발음의 대조 연구는 대체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발음 대조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대조 두 가지 관점으로 연구하고 있다. 본 절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발음 대조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대조를 기준으로 나누어 기존 연구의 결과를 검토하겠다.

### 2.1 한·중 음소 대조의 연구 현황

한·중 발음의 대조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로 학위논문으로 많이 다뤄지는 주제이다. 이 중에서 ZHANG LIN(2008), 손경애(2009), 진월(2010)<sup>4</sup>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을 비롯한 한·중 발음 대조 연구의 주제는 대부분 한·중 분절음의 음성적 대조이다.

한·중 발음 대조 연구의 연구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진월(2010)을 예시로 검토하겠다. 진월(2010)에서 국제음성기호(IPA)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분절음 체계를 대조하고 학습자의 발음 실태를 조사하였다. 즉, 한국어와 중국어가 서로 다른 음소의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음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

<sup>4</sup> 중국인 연구자의 이름 표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해당 논문 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 논문의 표기를 따른다.

ZHANG LIN(2008)과 손경애(2009)의 연구는 진월(2010)의 연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현상까지 대조하였다. 그러나 음운 현상의 차이가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음에 대한 영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연구 이외에도 장향실(2002)와 허용·김선정(2006) 등 학자들의 연구가 있다. 먼저 장향실(2002)에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한국어 발음 오류에 집중하여 두 언어의 분절음을 대조하였다. 장향실(2002)의 연구에서 분절음의 발생 유형, 조음 방법, 성대의 긴장성 등 세부 차이까지 대조하여 앞서 제시한 연구들보다 더 자세한 연구 결과를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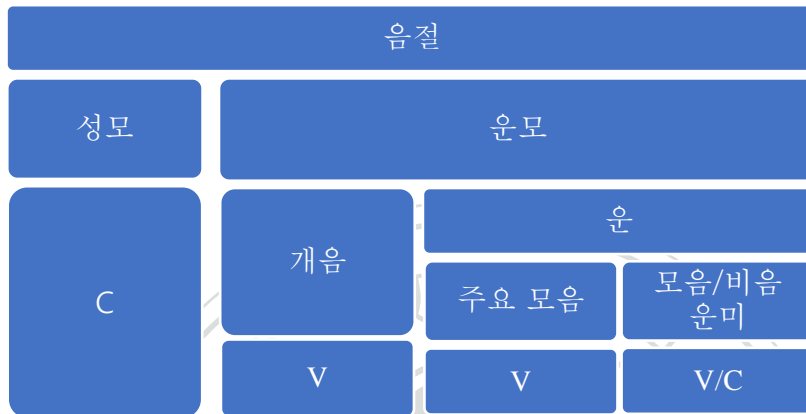
한편, 허용·김선정(2006)은 장향실(2002)과 달리 오류를 위주로 대조하는 연구가 아니지만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음소의 발음을 대조하였다. 허용·김선정(2006)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음소의 국제음성부호를 이용하여 두 언어가 서로 비슷한 발음을 찾아내어 발음의 발생 유형,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등 차이를 자세히 연구하였다. 따라서 장향실(2002)와 허용·김선정(2006)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음소의 발음 차이를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의 범위가 음소 이상의 음운 단위에 이르지 않는다.

상기의 연구들이 모두 중국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당장 발음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발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음소 이외에도 다른 요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2.2 한·중 음절 구조 대조의 연구 현황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대조를 다룬 연구는 장향실(2009), 정해연(2011), 리우동위(2013), 마려평(2013)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이 더욱 거시적인 시각으로 두 언어의 발음 체계를 연구하기 때문에 이전 연구가 다루지 못했던 학습자의 발음 문제를 많이 발견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오래된 중국어 음절 구조 분석 자료를 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점이다. 중국어의 음절 구조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전통적 관점과 현대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어의 전통적 음절 구조 분석에 의하면 중국어의 음절을 성

모(聲母)<sup>5</sup>와 운모(韻母)<sup>6</sup>로 양분한다. 운모를 다시 개음(介音)<sup>7</sup>, 주요 모음(主要母音), 모음 운미(母音韻尾)<sup>8</sup>, 비음 운미(鼻音韻尾)<sup>9</sup>로 세분할 수 있고 개음, 주요 모음, 모음 운미를 모두 완전한 모음이라고 정의한다. 중국어의 전통적 음절 구조 분석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전통적 중국어 음절 구조 분석

<그림 1>에서 보듯이 전통적 중국어 음절 구조 분석에 따르면 중국어 하나의 음절에 모음 최대 세 개까지 허용된다. 즉, (C)VVV<sup>10</sup>와 같은 음절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의 음절에 모음 세 개까지 나타나는 것은 언어의 보편적 특성에 크게 벗어나며 최근의 중국어 음절 분석 결과<sup>11</sup>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적 중국어 음절 구조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를

5 성모는 전통적 중국어 음절 분석에서 음절의 맨 앞에서 나오는 자음을 지칭하는 말이다.  
 6 운모는 전통적 중국어 음절 분석에서 성모 이외의 모든 음절 구조를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7 중국어의 음절에서 주요 모음 앞에 나오는 활음을 지칭하는 말이다.  
 8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모음 뒤에도 활음이 나올 수 있다. 모음운미는 중국어의 음절에서 주요 모음 뒤에 나오는 활음을 지칭하는 말이다.  
 9 비음 운미는 전통적 중국어 음절 분석에서 주요 모음 뒤에 나오는 비음 자음을 지칭하는 말이다.  
 10 본고에서 C를 자음의 표시로, V를 모음의 표시로 사용하고 여기에서 괄호를 수의적 성부의 표시로 사용한다.  
 11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모음의 위치에만 모음이 나올 수 있으며 개음과 모음운미를 활음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대조하면 학습자의 현실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상의 한계점 이외에도 연구마다 개별적으로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먼저 정혜연(2011)과 리우동위(2013)의 한계점이 비슷하여 함께 토론한다. 두 연구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유형만 대조하였는데 음절 유형의 대조만 연구하면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음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도움이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모든 음절 유형이 중국어에도 빠짐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sup>12</sup>. 즉, 오직 음절 유형의 차이를 의거하면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발음하기가 어려운 음절을 예측할 수가 없으며 학습자 발음 오류가 발생한 원인도 설명할 수 없다.

다음으로 장향실(2009)에서 한국어 음절 유형별로 중국어 화자가 범하기 쉬운 발음 오류를 예측하고 중국어의 음절 구조와 대조하여 오류의 교정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바같이 중국어의 음절 구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 예측 결과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에 활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중국어권 학습자가 한국어 대부분의 활음을 발음하기 어렵다고 예측하지만 중국어권 학습자의 실제 발음과 상당히 큰 차이가 났다.

마지막으로 마려평(2013)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유형과 음절 구조 제약을 모두 대조를 하였다. 음절 구조 차이를 이용하여 중국어권 학습자가 발음하기 어려운 음절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이 이루지 못한 내용을 많이 보완하였지만 이 연구도 한계점이 있다. 먼저 한국어의 ‘ㄱ’을 하양 이중모음으로 분석한 내용이 현재 학계에서 한국어에 상향 이중모음만 존재한다는 관점과 다르다. 만약 ‘ㄱ’을 하양 이중모음으로 간주하면 한국어의 음절 유형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어의 음절 구조와 더욱더 비슷해지는 것이다. 그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예측하면 실제 발음 오류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 한편에 연구에서 음절 구조 제약을 언급하였지만 음소의 결합 제약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음소 결합 제약으로 음소 간의 결합이 자유자재가 아니다. 음소가

---

<sup>12</sup> 한국어의 음절 유형은 ‘V’, ‘VC’, ‘CV’, ‘GV’, ‘GVC’, ‘CVC’, ‘CGV’, ‘CGVC’ 총 8가지가 있고, 중국어의 음절 유형은 ‘V’, ‘VC’, ‘GVG’, ‘CV’, ‘GV’, ‘GVC’, ‘CVC’, ‘GVG’, ‘CGV’, ‘CGVC’, ‘CGVG’ 총 열한 가지가 있다.



서로 결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소 결합 제약을 고려하지 않으면 음절에 대한 연구가 완벽하다고 하기가 어렵다.

### 2.3 한·중 음소 결합 제약 대조의 연구 현황

박나영(2010), 상성남(2012), 이선(2014), Zhang Jian(2018) 등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소 결합 제약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예로 들 수 있다. 먼저 상성남(2012)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소 결합 제약을 대조하여 이론적으로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발음하기 어려운 음절을 나열하였다. 상성남(2012)의 연구 결과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학습 단계에서 음소 결합 제약으로 인하여 부딪힐 수 있는 많은 발음 난관을 찾아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발음 오류의 예측만 하였고 학습자의 발음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에서 짚인 발음 오류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없었다.

한편 박나영(2010), 이선(2014), Zhang Jian(2018)의 연구는 상성남(2012)에서 보이는 한계점을 발견하지 않았다. 이 연구들에서 모두 음소 결합 제약 외에도 학습자의 발음 실태 조사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세 개의 연구 결과로 현재 중국어권 학습자가 한·중 음소 결합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발음 오류가 많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마다 밝혀진 발음 오류의 결과가 다르다.

먼저 박나영(2010)과 이선(2014)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모든 유형을 음절을 대조하여 그중에서 차이가 난 부분을 선정하여 발음 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의 한국어 능력 분포부터 살펴보면 박나영(2010)의 연구 대상은 모두 초급 학습자이고 이선(2014)에서 연구 대상에 관한 정보는 중국 천진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만 밝혔고 한국어 능력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두 연구의 연구 대상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박나영(2010)의 연구 대상 총 30명 중에 중국 북쪽 사람이 19명이고 중국 남쪽 사람이 6명이고 출신 지역 명시하지 않는 사람이 5명이다. 그리고 이선(2014)의 연구 대상은 모두 중국 북쪽 사람이다. 두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여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발음하기가 어려운 음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나영(2010)의 조사 결과	이선(2014)의 조사 결과
초성+/ㅍ/형, 초성+/ㄱ/+/ㄴ/, 초성+/ㅈ/+/ㅇ/, 초성+/ㅊ/+/ㅇ/	초성+/ㄱ/+/ㅇ/, /ㄱ, ㅋ, ㆁ/+/ㅣ/, 초성+/ㅈ/+/ㅇ/, 초성+/ㄱ/+/ㅇ/, 초성+/ㄱ/+/ㅇ/, 초성+/ㅈ/+/ㅇ/, 초성+/ㅈ/+/ㅇ/, +/ㄱ/+/ㄴ/, 초성+/ㅈ/+/ㅇ/

<표 1> 박나영(2010)과 이선(2014)의 조사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두 연구의 조사 대상은 모두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로 한정하는데 발음 오류가 발생하는 음절 유형이 다르다. 박나영(2010)에서는 4가지의 음절형만 찾았지만 이선(2014)에서는 7가지의 음절형을 찾았다. 게다가 연구 결과를 대조하면 중복된 음절형도 있으나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한편, Zhang Jian(2018)에서 종성에 비음 자음이 나타나는 음절형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연구함에 박나영(2010)과 이선(2014)의 연구 범위와 조금 다르다. 하지만 조사한 음절형의 범위가 앞에서 언급한 연구보다 좁은데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발음 오류를 몇 개 더 밝혔다.

Zhang Jian(2018)의 조사 결과	(C)jʌn, (C)wɛn, (C)win, (C)ɛn, (C)jun, (C)wʌn, (C)on, (C)un, (C)jan, (C)ʌn, (C)wɛŋ, (C)wiŋ, (C)ɛŋ, (C)wʌŋ, (C)juŋ, (C)jʌŋ, (C)wiŋ, (C)wiŋ, (C)joŋ
-------------------------	--

<표 2> Zhang Jian(2018)의 조사 결과

연구마다 나타난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는 이유를 추측하자면 중국어권이 워낙 넓고 다양한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보인다. 중국어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언이 종류만 많을 뿐만 아니라 방언 간의 음운 체계도 상당히 다르다. 이상의 연구들은 발음 오류를 조사할 때 중국어권 학습자를 한정하여 조사하였지만 조사 대상자의 고향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즉, 조사 대상자가 출신 지역의 방언이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발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상기 3건의 연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된 이유는 조사 대상자의 고향에서 사용하는 방언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이 모두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음 교육을 위한 연구인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어권의 방언 차이로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양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음을 연구할 때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음절 구조의 관점으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발음하기가 어려운 음절을 예측하고 실험을 통하여 그러한 음절의 발음 오류 양상을 기록하고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 3.1 연구 대상

대만은 중국과같이 중국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지만 있지만 민남어(閩南語), 객가어(客家語) 등 방언도 사용한다. 이 중에서 민남어는 중국어 방언 중에 하나이지만 음절 체계가 중국어와 상당히 다르다. 민남어는 대만에서 TV 프로그램, 라디오, 안내 방송 등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노년층에 중국어를 아예 하지 못하고 민남어만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민남어와의 밀접한 접촉으로 대만의 한국어 학습자가 민남어의 영향으로 일반 중국어권 학습자와 발음 오류 양상이 다르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의 빠른 발전에 비하여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연구의 진행은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느껴진다. 따라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에 가지는 강한 학습 욕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비록 한국어와 중국어가 서로 유사한 음절 구조를 갖고 겹친 음소도 많지만 음절 구조의 미묘한 차이로 인하여 두 언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음소로 형성된 음절이더라도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소 대조의 범주에서 벗어나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대조를 연구 범위로 삼는다.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한 발음 오류에 집중할 수 있게 본고에서 한국어와 중국어가 겹친 음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한, 음절 형성 제약 층위를 기준으로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음절 구조 제약으로 인한 오류와 음소 결합 제약으로 인한 오류 2가지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하겠다.

### 3.2 연구 구성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발음하기 어려운 음절을 예측하는 데에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체계 대조는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작업이다. 두 언어의 음절 체계를 대조하기 위하여 두 언어 각각의 음절 체계부터 정리해야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 기존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두 언어의 음절 체계를 음소 체계, 음절 구조, 음소 결합 제약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음소 체계의 경우에는 크게 자음, 모음으로 분류하고 다시 조음 위치, 조음 방법, 개구도, 입술 모양 등 세부 특징을 이용하여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정리한다. 그리고 음절 구조는 음절의 구성 성분을 제시하고 각 성분의 기능을 검토한 뒤 모두 존재할 수 있는 음절 유형을 밝힌다. 또한 전에 언급한 바처럼 기존 연구가 대부분 전통 관점의 중국어 음절 구조 분석에 의하여 연구하였는데 본고에서 현대 관점의 중국어 음절 구조 연구를 이용하여 기존 연구 내용의 부족을 보완하겠다. 마지막으로 음소 결합 제약은 음운 자질을 이용하여 음소 결합 제약 규칙을 정리한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이용하여 음소 체계, 음절 구조, 음소 결합 제약으로 나누어 두 언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이전 장절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을 자세히 대조하고 대만인 학습자에게 발음하기 어려운 음절을 예측하고 조사한다. 먼저 본 연구는 음절 구조 차이가 학습자의 발음에 미친 영향을 중심을 두어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음소의 발음 조사를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음소의 발음 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음소가 학습자의 발음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음소 체계의 대조 결과를 통하여 두 언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음소를 찾는다. 다음으로 정해진 음소 명단에 의하여 음조 구조와 음소 결합 제약의 대조 결과를 이용해서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음절을 뽑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사용하여 조사 어휘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피험자에게 조사 어휘를 읽게 하고 수집한 녹음 자료를 한국어 모국어 화자에게

들여 전사 자료로 만든다.

제4장에서 조사 결과를 음절 형성 제약의 층위에 따라 음절 구조 제약 차이로 인한 발음 오류와 음소 결합 제약 차이로 인한 오류 2집단으로 나누어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을 정리한다. 정리한 결과로 대만인 학습자가 범하는 발음 오류 특징을 찾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음절 구조 차이의 관점으로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통하여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음절의 관점으로 대만인 학습자를 대상으로한 한국어 발음 교육을 실시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을 제시한다.



## II.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체계

### 1. 한국어의 음절 체계

언어의 발음을 대조하는 데에 음운 체계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음운 체계로는 음소 체계, 음절 체계, 운율 체계 등이 있는데 본 연구의 주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차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음절 이상의 음운 체계를 다루지는 않겠다. 한편, 음절이란 음소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서로 연결하여 형성된 음운 단위로 언어 간의 음절 구조 차이를 대조하려면 음절의 구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음절 체계를 음소의 체계, 음절의 구조, 음절 형성의 제약 이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체계를 토론하고자 한다.

#### 1.1 한국어의 음소 체계

현재 대부분의 학자가 한국어를 CGVC<sup>13</sup> 구조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어의 음소는 자음, 모음, 활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한국어의 자음 체계부터 살펴보면 국립국어원의 표준발음법에서는 총 19개의 한국어 자음을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의 자음을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발성 유형에 의하여 분류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순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과열음	평음	ㅂ /p <sup>14</sup> /	ㄷ /t/		ㄱ /k/	-
	격음	ㅃ /p <sup>h</sup> /	ㄸ /t <sup>h</sup> /	-	ㅋ /k <sup>h</sup> /	
	경음	ㅍ /p*/ <sup>15</sup> /	ㅌ /p*/		ㅋ /k*/	

<sup>13</sup> 본고에서 G를 활음의 표시로 사용한다.

<sup>14</sup> 신지영(2011)에 따르면 말소리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음성’과 심리적으로 존재하는 ‘음운’ 혹은 ‘음소’로 나뉜다. 음성과 음운을 구분하기 위하여 표기하는 데 음성은 각괄호([])에 넣고 음운은 두 사선 사이(//)에 넣어 표시한다.

<sup>15</sup> 국제음표부호에 한국어의 격음을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는 부호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 신지영·차재은(2003)에 따라 ‘\*’를 격음의 표시로 사용한다.

마찰음	평음	-	ㅅ /s/	-	-	ㅎ /h/
	경음		ㅆ /s*/			
파찰음	평음	-	-	ㅈ /tɕ/	-	-
	격음			ㅊ /tɕʰ/		
	경음			ㅉ /tɕ*/		
비음		ㅁ /m/	ㄴ /n/	-	ㅇ /ŋ/	-
설측음		-	ㄹ /l/	-	-	-

<표 3> 한국어의 자음 체계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의 자음 체계는 조음 위치에 의하여 양순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으로 나누며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설측음으로 구분할 수 있고 발성 유형을 이용하여 평음, 격음, 경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어 자음 체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파열음과 파찰음을 조음할 때 입밖으로 뿜는 기식의 양과 성대의 긴장도에 따라 구분된 평음, 경음, 격음의 삼분 체계이다. 이것은 한국어 이외의 언어에 찾기가 쉽지 않은 특성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을 배울 때 흔히 부딪치는 난관이다. 또한 치경 마찰음의 경우에는 삼분 체계가 아니지만 조음 시, 성대에 긴장도에 따라 평음과 경음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한국어의 모음은 총 21개인데 이 중에서 단모음이 10개이고 이중모음이 11개이다. 한국어의 모음 체계를 조음 시 혀의 전후 위치, 개구도(開口度)<sup>16</sup>, 입술 모양에 따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up>16</sup> 조음할 때 입을 벌리는 정도이다.



단모음 체계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i/	ㅟ /y/	ㅡ /u/	ㅜ /u/
중모음	ㅐ /e/	ㅙ /ø/	ㅓ /ʌ/	ㅛ /o/
저모음	ㅘ /æ/	-	ㅚ /a/	-

<표 4> 한국어의 단모음 체계

<표 4>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단모음은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고 개구도를 통하여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입술 모양에 의하여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ㅟ/y/와 ㅙ/ø/가 위치적으로 단모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조음 시, 이중모음 [wi]와 [wɛ]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단모음 이외에도 한국어의 모음 체계에 활음<sup>17</sup>과 단모음이 결합한 이중모음도 존재한다. 한국어의 활음은 /j/와 /w/가 있는데 활음을 기준으로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중모음 체계	
j계	ㅟ/ja/, ㅘ/jæ/, ㅙ/jɛ/, ㅓ/jo/, ㅜ/ju/, ㅡ/wj/
w계	ㅚ/wa/, ㅘ/wæ/, ㅙ/wɛ/, ㅓ/wo/

<표 5> 한국어의 이중모음 체계

하지만 한국어의 모음 체계를 국립국어원의 표준발음법과 다르게 분석하는 학

<sup>17</sup> 활음은 또한 반모음, 과도음으로 부르기도 한다. 활음의 성질이 모음과 비슷하지만 발음할 때 조음 기관이 다음 위치로 옮겨 가면서 자체의 소리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소리이다.



자가 있다. 신지영·차재은(2003)과 이진호(2012)에서 한국어의 현실 발음에서의 한국어 단모음이 국립국어원에서 정립된 체계처럼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신지영·차재은(2003)에 의하면 현재 한국어 발화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단모음은 7개밖에 되지 않는다. 먼저 국립국어원에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도 허용하는 ‘기’와 ‘니’는 실제 발음에서 아예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전설 평순 모음의 ‘기’와 ‘니’는 젊은 층 화자에서 구분하지 않고 중간 발음인 [ɛ]로 발음한다.

또한 신지영(2011)에서 /u/는 한국어 단모음 중 유일하게 활음과 결합하지 않는 음소라는 점과 이중모음들이 선행하는 자음과 특징적인 결합 제약을 갖는다는 점을 의거하여 ‘니’는 /ɯi/와 같은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주장한다. 신지영·차재은(2003)에 의한 현실 발음의 한국어 모음 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모음 체계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평순	원순
고모음	i	u	u
중모음	ɛ	ʌ	o
저모음	-	a	-
이중모음 체계			
j계	ja, jɛ, jʌ, jo, ju		
w계	wa, wɛ, wʌ, wi		
ɯ계	ɯi		

<표 6> 실제 발음의 한국어 단모음 체계(신지영·차재은, 2003)

본고는 대만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교육을 위한 연구로서 현실 발음에 중심을 두어 신지영·차재은(2003)에서 제시한 현실 발음의 모음 체계를 따르기로 하였다.

## 1.2 한국어의 음절 구조

한국어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 3가지 구조로 구성된 것이다. 그 가운데에 중간에 위치한 중성은 음절의 필수적 성분으로 음절핵이라고 불린다. 음절핵 이외의 성분들은 음절의 수의적 성분이고 주변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주변음에 초성과 종성 둘이 포함되는데 음절핵과의 상대 위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음절핵 앞에 위치하는 초성이 두음으로 되고 음절핵 뒤에 위치하는 종성이 말음으로 분류된다.

한편, 음절 구조 간의 사이가 다 같지는 않다. 초성, 중성, 종성 서로의 사이에 따라서 음절을 다시 좌분지 구조와 우분지 구조 두 가지 내부 구조로 나눌 수 있다<sup>18</sup>. 전상범(1980)<sup>19</sup>, 김차균(1987)<sup>20</sup>, 강옥미(2003)<sup>21</sup> 등 연구에서 한국어 음절의 내부 구조가 좌분지 구조에 더 가깝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발음 교육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발음 교재에 제시한 평면적 구조를 위주로 대조하기로 하였다. 한국어의 평면적 음절 구조를 그림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sup>18</sup> 신지영·차재은(2003)에 의하면 초성, 중성, 종성 사이의 거리가 같지 않다. 중성과 종성이 하나의 단위로 결합한 뒤에 다시 초성과 조합하는 구조는 우분지 구조라고 하고 초성과 중성이 하나의 단위로 이뤄진 후에 다시 종성과 연결되는 구조는 좌분지 구조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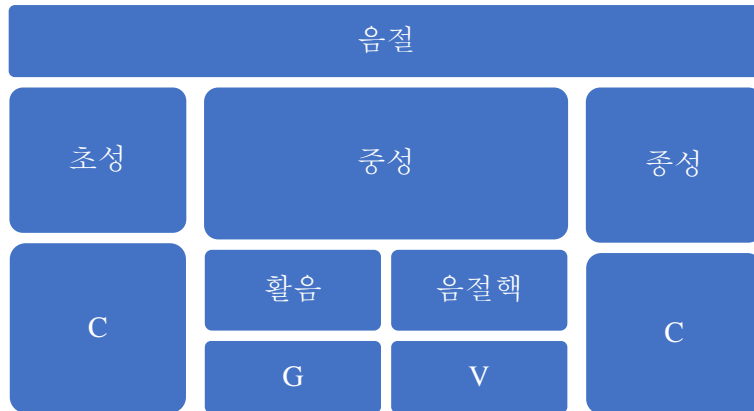


한국어 음절의 내부 구조 (신지영·차재은, 2003)

<sup>19</sup> 田相範(1980)에서 한국어의 빠른 발화에서 CV구조를 생략하는 현상을 통하여 한국어에서 초성과 중성의 사이가 더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예) ㄱ. 자습서 → 잡서 ㄴ. 태극기 → 택기 ㄷ. 대행진 → 땡진 ㄹ. 알뜰상스럽다 → 압상스럽다

<sup>20</sup> 김차균(1987)에서 ‘노사-말놀이 게임’을 이용하여 한국어의 VC구조보다 CV구조의 안정성이 더 좋다고 설명하였다. 예) 철수는 오늘 학교에 안 간다. → 처.노.살.수.는 오.노.사.늘 하.노.삭.교.에 아.노.산.간다.

<sup>21</sup> 강옥미(2003)에서 한국어의 내부중첩과 어중중첩의 예시를 사용하여 한국어 음절의 내부 구조는 좌분지 구조인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 ㄱ. 둥 → 두둥 ㄴ. 아사 → 아사삭 ㄷ. 주룩 → 주루룩



<그림 2> 한국어의 음절 구조 모형

음절 구조에 맞추어 한국어에 나타날 수 있는 음절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음절 유형	음절 구성 성분	예시
유형1	V	아, 오
유형2	GV	야, 요
유형3	CV	가, 코
유형4	CGV	겨, 휴
유형5	VC	안, 옥
유형6	GVC	역, 연
유형7	CVC	녹, 방
유형8	CGVC	벽, 격

<표 7> 한국어의 음절 유형

한국어에 나타날 수 있는 모두 음절이 이 8가지의 유형에 속한다. 또한, 이 8가지의 음절 유형을 다시 중성으로만 형성하는 유형1, 2와 초성과 중성이 고통으로 구성하는 유형3, 4와 중성과 종성이 같이 형성하는 유형5, 6, 마지막으로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포함된 유형7, 8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1.3 한국어의 음소 결합 제약

앞서 언급한 8가지의 유형에 부합하기만 하면 모두 실제 언어생활에 실현할 수 있는 음절이 아니다. 음소와 음소의 연결에 제약이 존재한다. 신지영·차재은(2003)에서 음소의 결합 제약을 총 5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말소리의 구체적인 실현과 관련되는 표면 음성 제약이다. 둘째, 한 음절의 음절 구조의 특징과 관련되는 음절 구조 제약이다. 셋째, 음소와 음소의 연결을 제약하는 음소 결합 제약이다. 넷째, 형태소의 내부구조에 대한 형태소구조 제약이다. 마지막으로 형태와 형태의 결합을 제약하는 형태 결합 제약이다. 본고에서 음절 이상의 단위를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음절 이상의 단위에서 일어나는 제약을 연구에서 배제하고자 한다. 또한 여기에서 제시하는 음소 결합 제약은 한국어 고유어에만 적용하고 한자어와 외래어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약이 존재한다. 본고에서 참고하는 제약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음절 구조 제약	
제약 1	한국어의 표면 음성에서는 음절 초성에 [ŋ]이 나타나지 못한다.
제약 2	한국어의 표면 음성에서는 음절 말에 나오는 모든 자음은 불파음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제약 3	한국어의 표면 음성에서는 초성과 중성에 자음군이 올 수 없다.
음소 결합 제약	
제약 1	활음은 단모음에 후행하지 못한다.
제약 2	활음은 단모음 /w/와 결합하지 못한다.
제약 3	/j/는 [+전설성, +고설성]을 가진 모음과 결합할 수 없다 <sup>22</sup> .
제약 4	/w/는 [+원순성]을 가진 단모음과 결합할 수 없다 <sup>23</sup> .
제약 5	/w/는 /i/ 이외의 단모음과 결합하지 못한다.
제약 6	이중모음 /jɛ/는 자음과 결합하지 못한다.
제약 7	[+설정성, -지속성] 자질을 가진 설정성 장애음은 /j/계 이중모음과 결

<sup>22</sup> 한국어에 [+전설성, +고설성]을 가진 모음은 /i/만 존재한다.

<sup>23</sup> 한국어에 [+원순성]을 가진 모음은 /u/와 /o/가 있다.

	합하지 못한다 <sup>24</sup> .
제약 8	[-설정성, +전방성] 자질을 가진 양순 자음은 /w/계 이중모음과 결합하지 못한다 <sup>25</sup> .
제약 9	활음 /ɥ/는 자음과 결합하지 못한다.

<표 8> 한국어의 음절 구조 결합 제약<sup>26</sup>(신지영·차재은, 2003)

이러한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음절이 한글로 표시할 수 있는 음절보다 한정된다.

## 2. 중국어의 음절 체계

중국어의 음절 체계에 대한 내용은 현재까지 기존 연구에 의한 정리된 내용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 최근 중국어 음절 체계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 언어학 관점의 중국어 음절 체계를 정리하고 밝히도록 한다. 앞서 한국어 음절 체계를 다루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음소의 체계, 음절의 구조, 음절 형성의 제약 세 부분으로 나누어 토론하겠다.

### 2.1 중국어의 음소 체계

林燾·王理嘉(1992)에 의하면 중국어의 자음은 총 22개가 있다. 중국어의 자음을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발성 유형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순음 (兩唇音)	순치음 (唇齒音)	설첨음 (舌尖音) <sup>27</sup>	권설음	설면음	설근음
--	--------------	--------------	----------------------------	-----	-----	-----

<sup>24</sup> 한국어에 [+설정성, -지속성] 자질을 가진 설정성 장애음은 /t/, /tʰ/, /t\*/, /tɕ/, /tɕʰ/, /tɕ\*/가 있다.

<sup>25</sup> 한국어에 [-설정성, +전방성] 자질을 가진 설정성 장애음은 /p/, /pʰ/, /p\*/, /m/가 있다.

<sup>26</sup> 한국어의 결합 제약은 한국어의 발음을 연구 대상으로 정리한 제약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철자법으로 ‘아’와 같은 ‘오’이 초성에서 나타나는 경우, 또한 ‘췌’와 같은 [+설정성, -지속성] 자질을 가진 설정성 장애음이 /j/계 이중모음과 연결하는 사례가 있지만 발음에서 음운변화로 다른 음으로 변하거나 발음을 아예 하지 않는 식으로 표현한다.

<sup>27</sup> 한국어의 치경음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한국어의 과열음은 /ㄸ/, /ㅈ/, /ㄹ/ 등이 있다.

					(捲舌音) <sup>28</sup>	(舌面音) <sup>29</sup>	(舌根音) <sup>30</sup>
색음 (塞音) <sup>31</sup>	불송기 (不送氣) <sup>32</sup>	b /p/	-	d /t/	-	j /tɕ/	g /k/
	송기 (送氣) <sup>33</sup>	p /pʰ/	-	t /tʰ/	-	q /tɕʰ/	k /kʰ/
찰음 (擦音) <sup>34</sup>	-	-	f /f/	s /s/	sh /tɕʃ/	x /ɕ/	h /x/
색찰음 (塞擦音) <sup>35</sup>	불송기 (不送氣)	-	-	z /ts/	zh /tɕʰ/	-	-
	송기 (送氣)	-	-	c /tsʰ/	ch /ɕʃ/	-	-
비음 (鼻音)	-	m /m/	-	n /n/	-	-	-
변음 (邊音) <sup>36</sup>	-	-	-	l /l/	-	-	ng /ŋ/

<sup>28</sup> 혀끝을 윗잇몸 또한 경구개 쪽으로 말아 올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한국어에 권설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sup>29</sup> 한국어의 경구개음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한국어의 경구개음은 /ʒ/, /ʒʰ/, /ʒʃ/가 있다.

<sup>30</sup> 한국어의 연구개음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한국어의 연구개음은 /ŋ/, /ŋʰ/, /ŋʃ/, /ŋʌ/이 있다.

<sup>31</sup> 한국어의 파열음에 해당하는 표현. 한국어의 파열음은 /k/, /kʰ/, /kʃ/ 등이 있다.

<sup>32</sup> 한국어의 무기음에 해당하는 표현. 한국어의 무기음은 /k/, /kʰ/, /kʃ/ 등이 있다.

<sup>33</sup> 한국어의 유기음에 해당하는 표현. 한국어의 유기음은 /kʰ/, /kʃʰ/, /kʃʌ/ 등이 있다.

<sup>34</sup> 한국어의 마찰음에 해당하는 표현. 한국어의 마찰음은 /s/, /sʰ/, /sʃ/가 있다.

<sup>35</sup> 한국어의 파찰음에 해당하는 표현. 한국어의 파찰음은 /ʒ/, /ʒʰ/, /ʒʃ/가 있다.

<sup>36</sup> 한국어의 설측음에 해당하는 표현. 한국어의 설측음은 /l/가 있다.

통음 (通音) <sup>37</sup>	-	-	-	-	r /r/	-	-
--------------------------	---	---	---	---	-------	---	---

<표 9> 중국어의 자음 체계(林燾·王理嘉, 1992)

<표 9>에서 보듯이 중국어의 자음 체계는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순치음, 설첨음, 권설음, 설면음, 설근음으로 나눌 수 있고 조음 방법에 따라 색음, 찰음, 색찰음, 비음, 변음, 통음으로 구분할 수 있고 발성 유형에 따라 송기음, 불송기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어의 자음 체계는 한국어의 자음 체계와 일치하여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갈려 있다. 한편, 한국어처럼 긴장성 유무에 의한 평음과 경음의 대립이 없고 기식성의 차이로 유기음과 무기음을 구분한다. 이러한 차이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평음과 경음을 구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한편, 중국어의 모음은 총 21개인데 이 중에서 단모음은 8개가 있고 이중모음은 9개가 있고 삼중모음은 4개가 있다. 중국어의 모음 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모음 체계					
	전설 모음		중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i /i/	ü /y/	i <sup>38</sup> /i/	-	u /u/

<sup>37</sup> 조음 시 장애가 구강에서 발생하는데 구강 통로의 넓이가 넓어 매우 약한 마찰만 수반하여 나는 소리를 지칭하는 표현.

<sup>38</sup> /i/는 중국어에서 /s/, /ts/, /tsʰ/, /ʃ/, /tʃ/, /tʃʰ/의 뒤에서만 나오는 모음이며 앞에서 나오는 자음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 중국어에서 /i/ 앞에 설첨음 자음이 [ts], [tʃ], [s]가 나올 때 [ɿ]로 발음하고 권설음 [tʃ], [tʃʰ], [ʃ]와 결합할 때 [ɿ]로 발음한다. 일반인들이 자음 /s/, /ts/, /tsʰ/, /ʃ/, /tʃ/, /tʃʰ/ 뒤에 운모가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한어변음(漢語拼音)에 /i/를 표시하는 대표부호를 따로 만들지 않는데 영운모(零韻母)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i/를 표시할 때 모음/i/와 같이 ‘i’라는 부호를 공용



중모음	e <sup>39</sup> /ɛ/	-	e /ɜ/	-	o /o/
저모음	a /a/	-	-	-	-

<표 10> 중국어의 단모음 체계(林燾·王理嘉, 1992)

<표 10>에서 보듯이 중국어의 단모음은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 중설 모음, 후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고 개구도에 의하여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입술 모양을 기준으로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어의 전통적 음절 분석법인 반절법(反切法)<sup>40</sup>에 따르면 중국어의 음절은 성모와 운모로 나눌 수 있으며 운모가 다시 개음, 주요 모음, 운미로 세분할 수 있다. 반절법을 이용하여 중국어의 음절 성분을 분석하는 연구가 중국어에 활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연구 중에 王力(196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王力(1963)에서 중국어의 개음과 모음 운미가 모두 온전한 모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 학자들이 언어의 보편적 구조를 이용하여 중국어의 음절 구조를 다시 분석하고 있다. 林燾·王理嘉(1992)에서 활음을 V로 표시하지만 복모음을 발음할 때 혀가 움직여야 하며 소리 자체도 미끄럽게 계속 변화한다<sup>41</sup>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해우(2003)에서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유성성 모음만 성조(聲調)를 가질 수 있다며 Howie(1993)의 실험 결과를 의거하여 개음은 성조를 불규칙적으로 갖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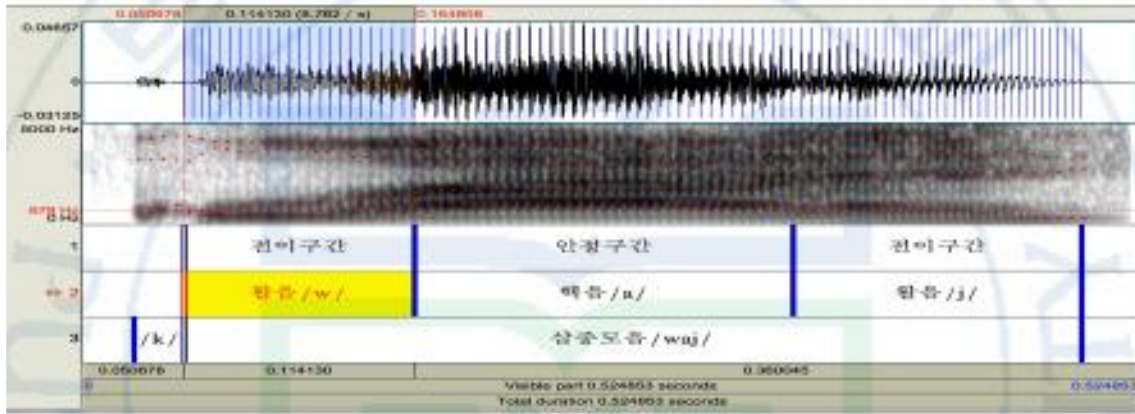
<sup>39</sup> /ɛ/는 중국어에서 거의 단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복모음의 형식으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어변음에 /e/를 표시하는 대표부호가 따로 없고 모음/a/와 같이 ‘e’라는 부호를 공용한다.

<sup>40</sup> 중국의 전통적 표음 방법이다. 반절법의 사용법은 먼저 표시할 글자를 성모와 운모로 나누고 표시할 글자의 성모와 같은 글자와 표시할 글자의 운모와 같은 글자를 한 개씩 찾은 후 그 두 글자로 표시하려는 글자의 음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예) 烏 哀都切(烏[u]’자는 ‘哀[aj]’자와 ‘都[u]’자의 조합이다.

<sup>41</sup> 複元音有以下兩特點: (1)舌頭的運動是滑動的, 音質的變化是連續不斷的……(후략)(林燾·王理嘉 1992: pp119)



때문에 모음이 아닌 활음이라고 주장한다.



<그림 3> 중국어 '怪[kwaj]'의 음파 파형(이쌍, 2016)

이쌍(2016)에서 음성학적 실험을 이용하여 중국어의 개음은 활음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어의 복모음의 음파 분석에 분명한 전이구간<sup>42</sup>이 존재한다. 즉, 중국어의 주요 모음 이외의 구조에 나타나는 모음이 모두 활음으로 바뀐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어 하나의 음절에 하나의 모음만 나타날 수 있으며 주요 모음 이외의 모두 모음이 활음으로 실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활음 체계가 있고 활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복모음도 존재한다.

중국어의 활음 체계는 한국어와 비슷하여 3가지가 있고 한국어의 활음 /w/가 중국어의 체계에서 /ɥ/로 대체한다는 차이만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이중모음 체계와 비교하면 중국어의 복모음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한국어에 'ㅟ/ja/', 'ㅑ/wa/', 'ㅛ/ɥi/' 등 활음이 단모음에 선행하는 상향 이중모음만 존재하는 반면에 중국어에 'ai/aj/', 'ei/ei/', 'ao/aw/' 등 활음이 단모음에 후행하는 하향 이중모음이 존재한다. 또한 중국어에 'iao /jaw/', 'iou /jow/', 'uai /waj/', 'uei /wej/'와 같은 단모음의 전

<sup>42</sup> 주파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분을 지칭하는 말이다.

후에 모두 활음이 나오는 삼중모음까지 존재한다. 중국어의 복모음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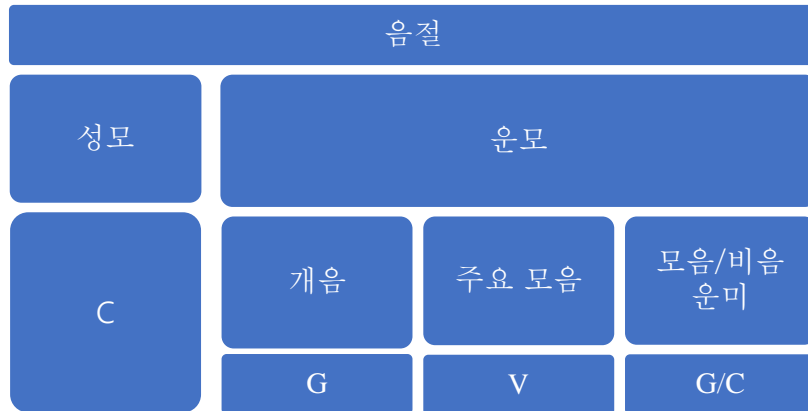
복모음 체계	
하향	ai /aj/, ei /ej/, ao /aw/, ou /ow/
상향	ia /ja/, ie /je/, ua /wa/, uo /wo/, üe /ue/
삼중모음	iao /jaw/, iou /jow/, uai /waj/, uei /wej/

<표 11> 중국어의 복모음 체계

## 2.2 중국어의 음절 구조

중국어의 음절은 필수적 성분인 주요 모음과 수의적 성분인 성모, 개음, 운미 총 4가지 성분으로 결합한 구조이다. 이 구조가 한국어의 음절 구조와 상당히 비슷하며 성모가 한국어의 초성에 해당하고 단모음과 상향 이중모음이 중성에 대응하고 모음 운미와 비음 운미가 한국어의 종성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중국어 음절의 표면 구조는 한국어와 유사하지만 내부 구조는 한국어와 다르다. 중국어의 전통적 음절 분석법인 반절법을 통하여 중국어의 중성과 종성의 사이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으며 학교에서도 중국어가 성모(초성)와 운모(중성+종성)의 조합이라고 가르치고 있다<sup>43</sup>. 또한 대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음부호인 주음부호(注音符號)에는 ‘ㄢ/an/’과 같은 부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호를 사용하는 것을 통하여 중국어 화자에게 운모 전체는 하나의 단위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음절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sup>43</sup> 대만의 학교에서 ‘冰/pīng/’과 같은 발음을 가르칠 때 冰, ㄅ, ㄩ, ㄥ, 冰(pīng, p, in, pīng)이라는 방식으로 성모와 운모를 분리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림 4> 중국어 음절 구조 모형

음절 구조에 맞추어 중국어에 나타날 수 있는 음절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음절 유형	음절 구성 성분	예시
유형1	V	啊[a], 一[i]
유형2	GV	呀[ja], 喔[wo]
유형3	CV	八[pa], 咪[mi]
유형4	CGV	家[teja], 蝦[eja]
유형5	VG	哀[aj], 歐[ow]
유형6	VC	安[an], 因[in]
유형7	GVC	煙[jan], 彎[wan]
유형8	GVG	優[jow], 邀[jaw]
유형9	CVC	山[san], 一[i]
유형10	CVG	拍[p <sup>h</sup> aj], 黑[xej]
유형11	CGVC	間[tejan], 先[ejan]
유형12	CGVG	交[tejaw], 消[ejaw]

<표 12> 중국어의 음절 유형

중국어의 음절 유형은 총 12가지인데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중성으로만 형성하는 유형1, 2와 초성과 중성이 공통으로 구성하는 유형3, 4와 중성과 종성이 같이 형성하는 유형5, 6, 7, 8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포함된 유형9, 10, 11, 12가 있다.

### 2.3 중국어의 음소 결합 제약

중국어의 음소 결합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결합 제약에 제한을 받는다. 林燾·王理嘉(1992)에 의하여 중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과 음소 결합 제약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음절 구조 제약	
제약 1	중국어에서는 자음군이 나오지 못한다.
제약 2	중국어에서는 음절 두음에 /ŋ/이 나타나지 못한다.
제약 3	중국어에서는 /n/과 /ŋ/ 이외의 자음이 말음에 나오지 못한다.
제약 4	중국어에서는 활음/q/가 모음 뒤에 나타나지 못한다.

<표 13> 중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林燾·王理嘉, 1992)

성모와 음모의 결합				
	개구호(開口呼) <sup>44</sup>	제구호(齊口呼) <sup>45</sup>	합구호(合口呼) <sup>46</sup>	촬구호(撮口呼) <sup>47</sup>
/p/, /p <sup>h</sup> /, /m/	+	+	(u) <sup>48</sup>	-
/f/	+	-	(u)	-
/t/, /t <sup>h</sup> /	+	+	+	-

<sup>44</sup> 모음/i/, /u/, /y/나 활음/j/, /w/, /q/로 시작한 운모 이외의 모두 운모의 총칭

<sup>45</sup> 모음/i/나 활음/j/로 시작한 모두 운모의 총칭

<sup>46</sup> 모음/u/나 활음/w/로 시작한 모두 운모의 총칭

<sup>47</sup> 모음/y/나 활음/q/로 시작한 모두 운모의 총칭

<sup>48</sup> 여기에서 '(u)'로 표시된 자음은 단모음/u/와만 결합한다.

/n/, /l/	+	+	+	+
/ts/, /ts <sup>h</sup> /, /s/	+	-	+	-
/tɕ <sup>h</sup> /, /ɕ/, /tʂ/, /ʃ/	+	-	+	-
/tɛ/, /tɛ <sup>h</sup> /, /ɛ/	-	+	-	+
/k/, /k <sup>h</sup> /, /x/	+	-	+	-

<표 14> 중국어의 성모와 운모 결합 양상(林燾·王理嘉, 1992)

<표 14>에서 보듯이 林燾·王理嘉(1992)에서 제시한 중국어 성모와 운모의 결합 양상이 아직 한국어처럼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실제 분포 양상만 정리된 상태이다.

중국어의 음소 결합 규칙을 더 논리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朱曉農(1983)에서 제시한 중국어 음소의 음운자질을 이용하여 중국어의 음소 결합 제약 규칙을 정리해 보았다.

음소 결합 제약	
제약 1	활음은 고모음, 그리고 중설모음과 결합하지 못한다.
제약 2	[+grave, -strident] 자질을 가진 자음은 /u/ 이외의 [-compact, +flat] 자질을 가진 모음과 결합하지 못한다.
제약 3	[-anteio] 자질을 가진 자음은 [-compact, -grave] 자질을 가진 모음과 결합하지 못하고 /u/ 이외의 [-compact, +flat] 자질을 가진 모음과 결합하지 못한다.
제약 4	[-grave, -strident] 자질을 가진 자음은 [-grave, +flat] 자질을 가진 모음과 결합하지 못한다.
제약 5	[-compact, +strident] 자질을 가진 자음은 [-compact, -grave] 자질을 가진 모

	음과 결합하지 못한다.
제약 6	[-flat] 자질을 자음은 [-compact, -grave] 자질을 가진 모음과 결합하지 못한다.
제약 7	[+compact, +grave] 자질을 자음은 [-compact, -grave] 자질을 가진 모음과 결합하지 못한다.
제약 8	[+compact, -grave] 자질을 자음은 [-compact, -grave] 자질을 가진 모음과만 결합한다.

<표 15> 중국어의 음소 결합 제약

위에서 보듯이 중국어가 한국어와 상당히 비슷한 음절 구조 제약을 지니고 있지만 중국어 음절의 내부 구조로 인하여 한국어보다 더욱 엄격한 음소 결합 제약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체계 대조

앞서 말했듯이 한국어와 중국어가 비슷한 음절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비교하면 세부적인 차이가 크게 난다. 따라서 이 절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체계 차이를 정리하겠다.

#### 3.1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소 체계 차이

앞서 제시한 것처럼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소는 중첩된 부분이 많으며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도 유사하다. 그러나 두 언어의 자음 체계에서 한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발성 유형이다. 한국어는 평음, 경음, 격음 세 가지 발성 유형으로 자음을 구분하지만 중국어는 무기음과 유기음으로만 구분한다.

한편, 모음의 경우에는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후설 모음을 가지고 있다. 두 언어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어 모음 /ʌ/와 /o/의 구분이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어에 /o/는 존재하지만 /ʌ/는 존재하지 않는다.

### 3.2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차이

한국어와 중국어 음절 구조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중국어에서 핵음 뒤에 활음의 출현이 허용되는 것이다. 물론 국립국어원의 표준 발음법에서 이중모음 ‘니’를 하양 이중모음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니’를 하양 이중모음으로 분류해야 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어의 이중모음 ‘니’가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주장하는 신지영(2011)에서 ‘니’의 성질에 대하여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관찰하면 /w/는 유독 활음과의 결합을 통하여 이중모음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둘째, 만약 ‘니’를 하양 이중모음으로 본다면, 이 하양 이중모음의 경우만 형태소 구조 조건에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 제약을 전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반면에 상향 이중모음으로 가정하면 이 이중모음이 선행하는 자음과의 전면적인 결합 제약이 존재하는 것을 자음과 활음의 결합 제약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근거로 여기에서 ‘니’는 상향 이중모음이라는 주장을 따라기로 하였다. 결국 중국어에 하양 이중모음이 존재함에 중국어 화자가 한국어의 [ai]와 같은 발음을 [aj]로 잘못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두 언어의 음절 구조 제약에 의하면 한국어의 종성에는 /k/, /n/, /t/, /l/, /m/, /p/, /ŋ/ 총 7가지의 자음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의 종성에는 /n/과 /ŋ/ 2가지 자음만 허용한다. 따라서 중국어 화자가 한국어 발음을 할 때 종성 발음에 실수를 많이 한다.

### 3.3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소 결합 제약 차이

음소 체계와 음절 구조와 달리 두 언어의 음소 결합 제약이 유난히 차이가 크다. 중국어의 음소 결합 제약이 한국어보다 복잡하다. 따라서 중국어가 한국어와 같은 음절 유형을 표현할 때 표현력이 한국어보다 떨어진다. 본고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에 모두 존재하는 음소를 중심으로 두 언어의 표현력 차이를 정리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p		p <sup>h</sup>		m		k		k <sup>h</sup>		t		t <sup>h</sup>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i	○	○	○	○	○	○	○	X	○	X	○	○	○	○
ε	○	X	○	X	○	X	○	X	○	X	○	X	○	X
a/a <sup>49</sup>	○	○	○	○	○	○	○	○	○	○	○	○	○	○
u	○	○	○	○	○	○	○	○	○	○	○	○	○	○
o	○	○	○	○	○	○	○	X	○	X	○	X	○	X
je	<u>X</u>	<u>○</u>	<u>X</u>	<u>○</u>	<u>X</u>	<u>○</u>	X	X	X	X	<u>X</u>	<u>○</u>	<u>X</u>	<u>○</u>
ja/ja	○	* <sup>50</sup>	○	*	○	*	○	X	○	X	<u>X</u>	<u>○</u>	X	*
ju	X	X	X	X	X	X	X	X	X	X	X	X	X	X
jo	X	X	X	X	X	X	X	X	X	X	X	X	X	X
wi	X	X	X	X	X	X	○	X	○	X	○	X	○	X
wε	○	X	X	X	X	X	○	X	○	X	○	X	○	X
wa/wa	○	X	X	X	○	X	○	○	○	○	○	*	X	*
	n		te		te <sup>h</sup>		s		l		h/x <sup>51</sup>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i	○	○	○	○	○	○	○	*	○	○	○	○	X	
ε	○	X	○	X	○	X	○	X	○	X	○	X	○	X
a/a	○	○	○	X	○	X	○	○	○	○	○	○	○	
u	○	○	○	X	○	X	○	○	○	○	○	○	○	
o	○	X	○	X	○	X	○	X	○	X	○	X	○	*
je	<u>X</u>	<u>○</u>	<u>X</u>	<u>○</u>	<u>X</u>	<u>○</u>	X	X	X	<u>X</u>	<u>○</u>	X	X	
ja/ja	○	*	<u>X</u>	<u>○</u>	<u>X</u>	<u>○</u>	X	X	○	○	X	X	X	
ju	○	X	X	X	X	X	X	X	X	X	X	X	X	
jo	X	X	X	X	X	X	X	X	X	X	X	X	X	

<sup>49</sup> /a/와 /a/는 각각 한국어와 중국어에만 존재하는 음소이지만 발음이 비슷하며 각각 자기의 음소 체계에 혼동할 음소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같은 음소로 간주한다.

<sup>50</sup> ‘\*’는 중국어의 음소 결합 제약에 의하면 존재할 수 있지만 대만에서 사용하는 중국어에 찾을 수 없는 음절의 표시로 사용한다.

<sup>51</sup> /a/와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같은 음소로 간주한다.



wi	○	X	○	X	○	X	○	X	X	X	○	X
wε	○	X	○	X	○	X	○	X	X	X	○	X
wa/wa	○	*	○	X	X	X	○	*	X	*	○	○

<표 16> 한·중 자음과 모음의 결합 양상 대조<sup>52</sup>

<표 16>을 통하여 자음과 모음의 결합의 경우에는 한국어의 음절 표현력이 중국어보다 좋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어에 단모음 /ε/와 /o/, 그리고 w계 이중모음과 결합할 수 있는 자음이 매우 한정되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이러한 발음을 배울 때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한다.

	i		ε		a/a		u		o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j계	-	-	jε	jε	ja	ja	ju	-	jo	-
w계	wi	-	wε	-	wa	wa	-	-	-	<u>wo</u>

<표 17> 활음과 모음의 결합 양상 대조

<표 17>에서 보듯이 중국어의 이중모음 표현력이 한국어보다 떨어진다. 중국어가 표현할 수 있지만 한국어가 표현할 수 없는 이중모음은 오직 1개만 있는 반면, 한국어가 표현할 수 있지만 중국어가 표현할 수 없는 이중모음이 4개나 존재한다.

	n		ŋ	
	한	중	한	중
i	○	○	○	○

<sup>52</sup> 여기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한국어에만 존재하고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조합이고 밑줄을 친 부분은 중국어에만 나타나고 한국어에 나타나지 않는 조합이다. 표 18, 표 19도 같은 맥락이다.

ε	○	x	○	x
a/a	○	○	○	○
u	○	○	○	x
o	○	x	x	○
ja/ja	○	○	x	○
ju	○	x	x	x
jo	x	x	x	x
wi	x	x	x	x
wa/wa	○	○	○	○

<표 18> 모음과 비음 자음의 결합 양상 대조

모음과 비음 자음의 결합도 마찬가지로 한국어가 더 좋은 표현력을 갖고 있다. 모음과 비음 자음의 결합 가운데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단모음 /ε/와 비음 자음의 결합이다. 중국어에 단모음 /ε/는 어떠한 자음 종성과도 조합할 수 없다. 따라서 단모음 /ε/와 자음 종성의 결합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에게 상당히 어려운 발음이 될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중국어의 음소 결합이 한국어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을 배울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음소 결합의 제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차이와 음소 결합 차이를 중심으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음하기 어려운 음절의 발음 실태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 III.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실태 조사

#### 1. 연구 음절 범위

앞서 언급한 바처럼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성이 상당히 다르다. 그러한 차이들이 대만인 한국어 학습의 한국어 발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음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만인 한국어 학습의 발음 특성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조사 음절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 조사 음절의 선정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 1.1 연구 음소 범위

음절 구조의 차이 이외에 분절음의 발음 차이도 학습자의 발음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의 주제는 음절 구조 차이로 발생한 발음 오류이기 때문에 분절음의 발음 차이로 인한 발음 오류를 되도록 줄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음소 중에는 /a/와 /a/, 그리고 /h/와 /x/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어와 중국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음소이다. /a/와 /a/, 그리고 /h/와 /x/는 각각 한국어나 중국어에만 존재하는 음소이지만 발음이 비슷하며 각각의 발음 체계에 혼동할 수 있는 발음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 음소들의 발음을 각각 같은 발음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음소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목록
모음	i, ε, a/a, u, o
자음	p, p <sup>h</sup> , m, k, k <sup>h</sup> , t, t <sup>h</sup> , n, te, te <sup>h</sup> , s, l, h/x
활음	j, w

<표 19> 한국어와 중국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음소 목록

## 1.2 발음 오류 음절 예측

일반적으로 학습자에게 어려운 발음은 학습자의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발음이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와 중국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음소만 한정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두 언어의 음절 구조 차이가 학습자 발음에 대한 영향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차이가 크게 음절 구조 제약과 음소 결합 제약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 두 가지 차이를 근거로 발음 오류를 예측한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의 차이점은 핵음 후 활음의 존재와 음절 마지막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자음의 종류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중국어의 하양 이중모음과 발음이 비슷한 한국어의 단모음 조합과 중국어에 존재할 수 없는 자음 종성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다.

유형	조사 음절
모음의 음절 구조 제약	아이, 에이/에이, 아오, 오우
자음의 음절 구조 제약	/n/와 /ŋ/ 이외의 모든 종성 발음

<표 20> 발음 조사 음절 목록(음절 구조 제약)

다음으로 음소 결합 제약의 경우에는 대체로 자음과 모음의 결합, 활음과 단모음의 결합, 모음과 비음 자음의 결합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음과 모음의 결합부터 살펴보겠다.

한국어와 중국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자음의 양이 많다는 점에서 자음의 조음 위치를 기준으로 나누어 결합 양상을 살펴보겠다.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의 양순 자음과 모음의 결합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		p <sup>h</sup>		m	
	한	중	한	중	한	중
i	○	○	○	○	○	○
ε	○	x	○	x	○	x
a/a	○	○	○	○	○	○
u	○	○	○	○	○	○
o	○	○	○	○	○	○
je	x	○	x	○	x	○
ja/ja	○	* <sup>53</sup>	○	*	○	*
ju	x	x	x	x	x	x
jo	x	x	x	x	x	x
wi	x	x	x	x	x	x
wε	○	x	x	x	x	x
wa/wa	○	x	x	x	○	x

<표 21> 양순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조<sup>54</sup>

분절음의 배열 제약은 음운 자질과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계열의 자음들이 비슷한 양상으로 실현한다. 표 22에서 보듯이 양순 자음들이 공통으로 /ε/와의

<sup>53</sup> 본 연구에서 ‘\*’로 표시된 부분은 중국어 음소배열 제약에 위반하지 않지만 대만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현대 중국어에서 찾지 못하는 음절이다. 이러한 음절들이 대만인 학습자가 발음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 음절로 삼는다.

<sup>54</sup> 표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결합 양상이 달라서 이번 연구의 대상 음절로 선정된 것이다.

결합에서 차이가 난다. 한편, 중국어의 양순음과 /ja(ja)/의 결합은 林熹·王理嘉 (1992)에서 제시한 배열 제약에 의하면 조합이 가능한 음절이지만 현재 대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에서 해당 음절을 찾을 수 없다<sup>55</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양순 자음과 /ja(ja)/의 결합도 조사 목록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어의 /p/가 /ja(ja)/, /wa(wa)/와 결합하지 못하고 중국어의 /m/가 /wa(wa)/와 결합하지 못해서 조사 음절로 선정한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치경 자음과 모음의 결합 양상 대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		t <sup>h</sup>		n		s		l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i	○	○	○	○	○	○	○	*	○	○
ε	○	x	○	x	○	x	○	x	○	x
α/a	○	○	○	○	○	○	○	○	○	○
u	○	○	○	○	○	○	○	○	○	○
o	○	x	○	x	○	x	○	x	○	x
je	x	○	x	○	x	○	x	x	x	○
ja/ja	x	○	x	*	○	*	x	x	○	○
ju	x	x	x	x	○	x	x	x	x	x
jo	x	x	x	x	x	x	x	x	x	x

<sup>55</sup> 대만 교육부에서 만든 사전에서 해당 음절에 대응하는 한자가 찾을 수 없다.

wi	○	X	○	X	○	X	○	X	X	X
wε	○	X	○	X	○	X	○	X	X	X
wa/wa	○	*	X	*	○	*	○	*	X	*

<표 22> 치경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조

치경 자음과 모음의 결합 양상을 관찰하면 양순 자음보다 두 언어의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l/를 제외한 치경 자음들은 최소 네 개의 차이가 나며 그 네 개의 차이가 각각 /ε/, /o/, /wi/, /wε/와의 결합에 나온다. 그리고 비음 자음 /n/의 경우에는 이중모음 /ju/와 결합도 두 언어의 배열 양상이 다르다. 한편, /l/의 경우에는 다른 치경 자음과 다름없이 단모음 /ε/, /o/와의 결합에 차이가 난다. 마지막으로 林燾·王理嘉(1992)의 연구 결과를 따르면 중국어의 치경 자음들이 이중모음 /wa/와 결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대만에서 사용하는 중국어에 치경 자음과 /wa/의 결합으로 형성된 음절을 찾을 수 없다<sup>56</sup>. 따라서 한국어에서도 결합하지 못하는 /tʰ/와 /wa/의 결합만 제외하고 치경 자음과 /wa(wa)/의 결합을 모두 조사 목록에 추가한다.

	tc		tc <sup>h</sup>	
	한	중	한	중
i	○	○	○	○
ε	○	X	○	X
α/a	○	X	○	X
u	○	X	○	X

<sup>56</sup> 대만 교육부에서 만든 사전에서 해당 음절에 대응하는 한자가 찾을 수 없다.

o	○	x	○	x
jɛ	x	○	x	○
ja/ja	x	○	x	○
ju	x	x	x	x
jo	x	x	x	x
wi	○	x	○	x
wɛ	○	x	○	x
wa/wa	○	x	○	x

<표 23> 경구개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조

경구개 자음과 모음의 결합 양상 차이는 자음의 개별적 차이없이 완벽히 일치한다. 경구개 자음은 모음 /ɛ/, /a(a)/, /u/, /o/, /wi/, /wɛ/, /wa(wa)/와의 결합이 한국어에서만 허용하기 때문에 이상의 음절을 조사 목록에 넣는다.

	k		k <sup>h</sup>	
	한	중	한	중
i	○	x	○	x
ɛ	○	x	○	x
a/a	○	○	○	○
u	○	○	○	○
o	○	x	○	x



jɛ	x	x	x	x
ja/ja	○	x	○	x
ju	x	x	x	x
jo	x	x	x	x
wi	○	x	○	x
wɛ	○	x	○	x
wa/wa	○	○	○	○

<표 24> 연구개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조

연구개 자음과 모음의 결합 양성 차이도 자음의 개별적 차이없이 일치하다. 연구개 자음과 모음의 결합에 조사해야 하는 음절은 연구개 자음과 모음 /i/, /ɛ/, /o/, /ja(ja)/, /wi/, /wɛ/와의 결합이다.

	h/x	
	한	중
i	○	x
ɛ	○	x
a/a	○	○
u	○	○
o	○	*
jɛ	x	x

ja/ja	x	x
ju	x	x
jo	x	x
wi	o	x
we	o	x
wa/wa	o	o

<표 25> 성문(연구개)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조

성문(연구개) 마찰 자음의 경우에는 두 언어가 모두 /j/와의 결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어의 이중모음과의 결합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wi/, /we/와의 결합에는 차이가 난다. 단모음과의 결합에는 중국어의 제약으로 /i/, /ε/와 결합할 수 없어 한국어와 차이가 나며 /o/와의 결합일 경우, 중국어 원칙적으로 결합이 가능하지만 대만에서 사용하는 중국어에 해당 음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 목록에 추가한다<sup>57</sup>.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각 조음 의치별 자음과 모음의 결합 양상 차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조사 음절 목록
자음+모음	배/베, 바, 뵤/뵤/뵤, 봐, 꺨/꺨, 꺨, 매/메, 마, 와, 기, 개/게, 고, 가, 귀, 꺨/꺨/꺨, 키, 캐/케, 코, 카, 퀴, 꺨/꺨/꺨, 대/테, 도, 뒤, 뵤/뵤/뵤, दा, 태/테, 토, 튀, 뵤/뵤/뵤, 내/네, 노, 뉴, 뵤, 뵤/뵤/뵤, 뵤, 재/제, 자, 주, 조, 쥐, 꺨/꺨/꺨, 좌, 채/체,

<sup>57</sup> 대만 교육부에서 만든 사전에서 해당 음절에 대응하는 한자가 찾을 수 없다.

	차, 추, 초, 취, 최/쾌/쾌, 새/세, 소, 쉬, 쇠/쇄/쇄, 쇠, 래/래, 로, 봐, 히, 해/해, 호, 휘, 회/쾌/쾌
--	--

<표 26> 조사 음절 목록(자음과 모음의 결합 제약)

다음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활음과 모음의 결합 양상 차이로 인한 발음 오류 예측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i		ε		a/a		u		o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j계	-	-	jε	jε	ja	ja	ju	-	jo	-
w계	wi	-	wε	-	wa	wa	-	-	-	wo

<표 27> 활음과 모음 결합의 대조

한국어와 중국어가 공통으로 가진 활음은 /j/와 /w/ 두 가지가 있다. 활음 /j/의 경우에는 모음 /u/와 /o/와의 결합에 차이가 나고 활음 /w/의 경우에는 모음 /i/와 /ε/와의 결합에 차이가 난다. 두 언어의 활음과 모음의 결합 양상을 참고하여 조사 음절을 뽑으면 다음과 같다.

유형	조사 음절 목록
활음+단모음	요, 유, 외/왜/웨, 위

<표 28> 조사 음절 목록(활음과 단모음의 결합 제약)

마지막으로 모음과 비음 자음의 결합 양상을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바같이 한국어의 발음에 나타나는 자음이 중국어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어는 음절 구조 제약으로 발음에 나타날 수 있는 자음은 /n/와 /ŋ/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n/,

/ŋ/과 모음의 조합만 토론한다.

	n		ŋ	
	한	중	한	중
i	○	○	○	○
ε	○	x	○	x
α/a	○	○	○	○
u	○	○	○	x
o	○	x	x	○
ja/ja	○	○	x	○
ju	○	x	x	x
jo	x	x	x	x
wi	x	x	x	x
wa/wa	○	○	○	○

<표 29> 모음과 비음 자음 결합의 대조

모음 /ε/의 경우에는 두 가지 자음의 결합에 모두 차이가 난다. 한편, 모음 /u/는 자음 /ŋ/과의 결합에 차이가 나고 모음 /o/는 자음 /n/와의 결합에 차이가 있으며 모음 /ju/는 자음 /n/와의 결합에 차이가 나타난다.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발음하기 어려운 음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조사 음절 목록
모음+비음 자음	앤/엔, 운, 윤, 앵/앵, 응

<표 30> 조사 음절 목록(모음과 비음 자음의 결합 제약)

## 2. 실험 방법

이 절에서 본연구 발음 실험의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 그리고 조사 결과의 분석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 2.1 조사 어휘 목록

앞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발음하기 어려운 음절의 예측 결과에서 보듯이 잘 사용하지 않고 생소한 음절도 조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가 완벽한 한국어 발음을 구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용 빈도와 상관없이 모두 음절의 발음 교육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에 느끼는 성취감, 흥미, 좌절감 등 학습 만족도를 고려하면 과도하게 생소한 어휘를 피해야 한다. 본고에서 학습의 효과와 학습자의 만족도를 최대한 병행할 수 있도록 2017년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교육용 어휘 목록 위주로 발음 조사 어휘<sup>58</sup>를 선정한다. 다만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해당 음절이 포함된 어휘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여 조사 어휘를 뽑는다.

또한 실제 언어생활에 같은 음절이 항상 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다양한 발음 환경에서의 발음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의 음절이 어두와 어중에 나타나는 어휘를 하나씩 선정하여 조사한다. 다만, 평파열음이 어두에 나타날 때와 어중에 출현할 때 발음 다르게 실현하기<sup>59</sup> 때문에 대표

<sup>58</sup>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1급에서 6급까지 총 10,635개 어휘 수록한다.

<sup>59</sup> 신지영(2011)에 의하면 한국어의 평파열음이 어휘에서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

음으로 실현하는 어두 평음의 발음만 조사한다. 그리고 목표 음절의 발음 특징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도록 음운 현상을 최대한 배제하고 어휘를 선정하였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를 기반으로 선정함으로 음운 현상이 들어가는 단어가 불가피하다.

유형	조사 목표	선정 어휘	유형	조사 목표	선정 어휘
음절 구조 제약 (모음)	아이	아이	음소 결합 제약(자음+ 모음)	뉴'	뉴똥#
	에이/애이	애이다#		눠	눠우치다, 나 눠다
	아우	아우누이#		눠/눠/눠	눠다#, 되눠 다
	오우	x <sup>60</sup>		눠'	눠두다
음절 구조 제약 (자음)	종성 'ㄱ'	익다, 꼬박	재/제	재다	
	종성 'ㄷ'	짓밟히다, 씨앗	자	자주	
	종성 'ㄹ'	알맞다, 알뜰	주	주머니	

부류	음운	주요 변이음	환경
파열음	p	p	어두
		b/b	어중
		p <sup>-1</sup>	종성
	t	t	어두
		d/d	어중
		t <sup>-1</sup>	종성
	k	k	어두
		g/g	어중
		k <sup>-1</sup>	종성

<sup>60</sup> 해당 음절이 포함하는 어휘가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음절 구조 제약 (자음)	종성 ‘ㄱ’	맘껏, 사람	음소 결합 제약(자음+ 모음)	조	조금
	종성 ‘ㄴ’	갑자기, 반 갑다		궤	궤
음소 결합 제약 (자음+모음)	배/베	배		죄/죄/죄	죄다#
	바	바비다#		좌	좌르르하다#
	비/베/뵤	되다		채/채	채우다, 부채
	봐	봐주다		차	차갑다, 옷차 림
	꽤/꽤	꽤다, 대꽤#		추	추위, 고추
	꽤!	꽤하#		초	초라하다, 녹초
	매/메	매우, 몸매		취	취다#, 자취
	먀	먀알먀알# <sup>61</sup>		최/최/최	최활#, 애최#
	봐	x <sup>62</sup>		새/세	새, 냄새
	기	기름		소	소매, 고소하 다
	개/게	개		쉬	쉬다, 아쉬움
	고	고기		쇠/쇄/쇄	쇠, 구두쇠
가	가우똥하다#	좌	좌르르#, 좌좌#		

<sup>61</sup>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먀’가 포함된 어휘가 ‘먀알먀야’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어휘로 ‘먀’가 반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사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sup>62</sup> ‘봐’와 같은 ‘모으-+’-아서’의 활용형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절이다.

음소 결합 제약 (자음+모음)	귀	귀	음소 결합 제약(자음+ 모음)	래/래 <sup>63</sup>	오래
	괴/괘/궤	괴로움		로	바로
	키	키, 지키다		좌	무좌가다 <sup>#</sup>
	캐/캐	캐다, 암캐 <sup>#</sup>		히	히득거리다 <sup>#</sup> , 마땅히
	코	코, 잠자코		해/해	해, 새해
	카	x <sup>64</sup>		호	호두, 개호주 <sup>#</sup>
	퀴	퀴다 <sup>#</sup> , 할퀴 다		휘	휘감다, 휘휘 #
	괴/괘/궤	괴괴하다 <sup>#</sup> , 배괴 <sup>#</sup>		회/회/휘	해나무 <sup>#</sup> , 회 회 <sup>#</sup>
	대/대	대다		요	요즘, 고요
	도	도둑	음소 결합 제약(활음+ 단모음)	유	유난히, 구유 <sup>#</sup>
	뒤	뒤	외/외/웨	외로움, 뒤외 다 <sup>#</sup>	
	되/돼/뒤	되게	위	위, 가위	
	태/태	태어나다, 이를테면	음소 결합 제약 (모음+비음 자음)	앤/앤 <sup>!</sup>	앤생이 <sup>#</sup>

<sup>63</sup> 두음법칙으로 한국어에 ‘ㄹ’로 시작한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래/래’, ‘로’, ‘좌’의 경우에는 해당 음절로 시작한 어휘를 따로 선정하지 않는다.

<sup>64</sup> ‘ㅋ’와 ‘ㆁ’의 조합이 한국어에 존재한 조합이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어휘 중에 ‘꺅’이나 ‘꺅날’, 꺅꺅 등 종성과 결합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라는 음절이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음소 결합 제약 (자음+모음)	토	토끼, 그토 룩	음소 결합 제약(모음+ 비음 자음)	온	온갖, 가온북 #
	튀	튀기다, 뺑 튀기#		운	운뎃뎃이#, 꼭지운노리 나무#
	퇴/땀/튀	튀하다, 수 땀지#		앵/앵	앵하다#, 앵 앵#
	내/네	내리다, 보 내다		웅	웅크리다, 뒤 웅#
	노	노래, 콧노 래			
합계		120 개			

<표 31> 조사 어휘 목록<sup>65</sup>

앞서 제시한 조사 음절 목록을 근거로 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하여 선정하는 조사 어휘 총 120개가 있다. 그리고 모음의 음절 구절 제약에 관한 조사에 한국어 화자가 중국어의 발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어 발음인 ‘ㄱ/aj/’, ‘ㄴ/ej/’, ‘ㄹ/aw/’를 추가한다. 궁극적으로 총 123개의 어휘 및 음절을 조사하였다.

## 2.2 실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대만인 한국어 학습의 발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만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대만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현재 TOPIK은

<sup>65</sup> 여기에서 ‘#’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뽑는 어휘의 표기로 사용하고 ‘|’를 해당 음절이 어두나 어중 두 위치 중에 한 위치에만 나타나는 표기로 쓴다.

한국어 능력에 따라 최저 1급부터 최고 6급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본고에서 TOPIK 1, 2급을 초급으로, 3, 4급을 중급으로, 5, 6급을 고급으로 정의한다. 그 이외에 TOPIK을 본 적이 없거나 통과하지 못하는 학습자도 초급 학습자로 분류한다. 조사 대상의 선정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기준으로 초, 중, 고급의 대만인 학습자 7명씩을 뽑는다. 또한 민남어가 대만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음 조사와 함께 피험자에게 민남어를 아예 못하는 0점에서 모국어처럼 잘 구사할 수 있는 5점 사이에 자기 민남어 능력에 점수를 매기는 민남어 능력 자체 평가를 요구하였다. 그 이외에 TOPIK을 본 적이 없거나 통과하지 못하는 학습자도 초급 학습자로 분류한다. 조사 대상의 개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	1	2	3	4	5	6	7
성별	여	남	여	남	여	여	여
한국어 능력	초	초	초	초	초	초	초
민남어 능력(말하기)	3	1	3	2	0	4	1
민남어 능력(듣기)	3	3	4	2	2	4	2
학습자	8	9	10	11	12	13	14
성별	여	여	여	남	여	여	남
한국어 능력	중	중	중	중	중	중	중
민남어 능력(말하기)	5	3	3	0	4	3	2
민남어 능력(듣기)	5	4	4	0	4	4	4
학습자	15	16	17	18	19	20	21
성별	여	여	여	여	여	여	여
한국어 능력	고	고	고	고	고	고	고
민남어 능력(말)	4	2	3	3	3	3	5

하기)							
민남어 능력(듣 기)	5	4	4	4	4	3	5

<표 32> 조사 대상자 정보

조사 대상에게 앞서 제시한 조사 어휘를 발음하게 하고 모든 발음 자료를 Sony ICD-SX713 보이스 레코더로 녹음하였다. 녹취한 파일은 현재 대만 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재학중인 한국어 원어민 대학원생 2명과 한국 동국대학교 국어국문과 출신인 한국어 원어민에게 들려 녹음 파일을 문자로 전사하였다.

### 3. 조사 결과

이 절에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조사의 결과를 정리하고 정리한 자료를 이용하여 대만인 학습자 발음 오류의 분포 경향을 분석한다.

#### 3.1 발음 오류 분포 경향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대만인 한국어 학습의 한국어 능력별 발음 오류율이 <표 33>와 같다.

한국어 능력	발음 오류율
초급	28.2%
중급	18.3%
고급	12.1%
평균	19.5%

<표 33> 발음 오류율

<표 33>에서 보듯이 대만인 한국어 학습의 발음 오류율은 총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한국어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결과를 통하여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발음 오류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능력이 좋은 것은 학습자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할수록 발음

도 더 잘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발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대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언인 민남어에 있다고 추정한다. 왜냐하면 민남어과 한국어가 겹쳐진 음절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sup>66</sup>.

어두 발음		어중 발음	
한국어 능력	발음 오류율	한국어 능력	발음 오류율
초급	28.4%	초급	20.8%
중급	16.2%	중급	10.7%
고급	12.1%	고급	6.2%
평균	18.9%	평균	12.6%

<표 34> 음운 환경별 발음 오류율

음운 환경에 따른 대만인 한국어 학습의 발음 오류율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만인 학습자가 어두보다 어중에 나타나는 발음을 더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뚜렷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음 장 발음 오류의 결과 분석에 음운 환경을 따로 구분하고 분석하지 않겠다.

### 3.2 유형별 발음 오류 분포 경향

대만인 학습자의 음절 구절 제약의 유형별 발음 오류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음절 구조 제약(모음)		음절 구조 제약(자음)	
한국어 능력	발음 오류율	한국어 능력	발음 오류율
초급	12.7%	초급	9.0%
중급	9.5%	중급	16.2%

<sup>66</sup> 민남어가 대만인 한국어 학습의 발음에 대한 영향은 다음 장에서 대만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과 분석과 함께 토론하겠다.

고급	9.5%	고급	9.5%
평균	10.6%	평균	11.6%

<표 35> 음절 구조 제약 유형별 발음 오류율

위에서 보듯이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음절 구조 제약에 의한 발음 오류율이 평균 오류율보다 낮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음절 구조 제약으로 인한 발음 오류율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과 큰 연관이 없다. 모음의 음절 구조 제약에 의한 발음 오류율을 보면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발음 오류율이 똑같으며 초급 학습자와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심지어 자음의 음절 구조 제약에 의한 발음 오류율의 경우에는 초급 학습자가 미세한 차이로 고급 학습자보다 더 낮은 발음 오류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연구 결과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처음부터 한국어 음절 구조 제약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음소 결합 제약(자음+모음)		음소 결합 제약(활음+단모음)		음소 결합 제약(모음+비음 자음)	
한국어 능력	발음 오류율	한국어 능력	발음 오류율	한국어 능력	발음 오류율
초급	30.7%	초급	11.3%	초급	44.4%
중급	16.7%	중급	4.2%	중급	52.4%
고급	10.8%	고급	0.6%	고급	38.6%
평균	19.4%	평균	5.4%	평균	45.1%

<표 36> 음소 결합 제약 유형별 발음 오류율

음소 결합 제약의 유형에 따라 대만인 학습자가 완전히 다른 발음 오류율 분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자음과 모음의 결합 제약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 발음 오류율 분포와 상당히 유사하며 학습자 한국어 능력에 따라 오류율이 낮아지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오류율 분포의 측면으로 보면 특별한 점이 없다.

다음으로 활음과 단모음의 결합 제약에 의한 발음 오류율은 약 5%로 모든 제약 유형 중에 가장 낮은 것이다. 발음 오류율은 초급 학습자부터 굉장히 낮은 11.3%로 시작하여 고급 학습자의 0.6%까지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낮아진

다. 결국 이런 유형의 음절은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상대적으로 발음하기가 쉽고 훈련을 통하여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음절 유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음과 비음 자음의 결합 제약의 경우,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발음하기가 가장 어려운 음절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발음 평균 오류율은 45.1%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전체 평균 발음 오류율보다 2배 이상 높다. 게다가 발음 오류율의 분포를 보면 한국어 능력에 따라 낮아지는 추세까지 보이지 않는다. 즉, 이러한 유형의 음절은 대만인 학습자에게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음절 유형이며 중국어와 차이가 가장 큰 유형이다.



## IV.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결과 분석

### 1. 음절 구조 제약 오류

이 절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 차이로 인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분석하고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고자 한다. 음절 구조 제약은 모음의 음절 구조 제약과 자음의 음절 구조 제약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절에서도 두 소절로 나누어 토론한다.

#### 1.1 모음의 음절 구조 제약 오류

앞서 언급했듯이 대만인 한국어 학습 음절 구조 차이에 의한 발음 오류를 잘 범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류 양상도 굉장히 단순하다.

조사 어휘 및 음절	조사 목표	조사 결과
아이	/ai/	O: 아이(100%)
		X: 없음
에이다	/ɛi/	O: 애이(100%)
		X: 없음
아우누이	/au/	O: 아우(30.2%)
		X: 아오(68.3%), 아어(1.6%)
ㅏ /aj/	/aj/	아이(88.9%), 애(7.9%), 애이(3.2%)
ㅓ /ɛj/	/ɛj/	애이(60.3%), 애(39.7%)
ㅗ /aw/	/aw/	아오(79.4%), 아우(20.6%)

<표 37> 음절 구조 차이(모음)로 인한 발음 오류 양상<sup>67</sup>

한국어 화자는 한국어에 하양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양 이중모음을 독립하는 두 개의 단모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연구의 정확성을

<sup>67</sup> O는 조사 목표와 동일하게 발음한 사례이며 X는 조사 목표와 동일한 소리를 내지 않는 사례이다.

확보하기 위하여 양방향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대만인 학습자들이 /ai/와 /ei/를 발음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 반면에 중국어의 ‘ㄟ/aj/’와 ‘ㄝ/ej/’로 발음할 때 한국어 화자가 다른 발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상 두 가지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중국어 하양 이중모음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한국어 단모음의 연속을 정확히 독립하는 두 개의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어의 발음 특성으로 유래된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어의 연음 현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절을 끊어서 읽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이’와 ‘애이’처럼 두 개의 한글로 적히는 경우에는 대만인 학습자가 본능적으로 음절을 끊어서 읽는다.

한편, /au/의 경우에는 발음 정확성 약 30%로 상당히 낮은 수치였다. 오류의 양상을 살펴보면 /u/를 [o]로 잘못 발음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중국어에서 찾을 수 있다. ‘ㄨ/aw/’에 대한 한국어 화자의 인식 실험 결과에 의하면 ‘ㄨ/aw/’를 [ao]로 인식하는 경우가 약 80%로 상당히 많이 나온다. 결국 대만인 학습자가 /au/를 발음할 때 발음 오류를 많이 범하는 이유는 중국어 ‘ㄨ/aw/’ 발음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의 [au]와 [ao]의 중간 발음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 1.2 자음의 음절 구조 제약 오류

자음의 음절 구조 차이로 인한 발음 오류도 모음의 음절 구조 차이로 인한 발음 오류와 마찬가지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잘 범하지 않는 유형이다. 오류 양상은 초성의 발음 오류로 복잡해 보이지만 종성 오류만 집계하면 오류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 나타난다.

조사 어휘	조사 목표	조사 결과
익다	종성 ‘ㄱ’	O: 익(88.9%)
		X: 인(6.3%), 이(4.8%)
꼬박		O: 박(82.5%), 꺾(9.5%), 꺾(3.2%)
		X: 바(1.6%), 빠(1.6%), 꺾(1.6%)
짓밟히다	종성 ‘ㄷ’	O: 짚(31.7%), 찰(3.2%), 찰(1.6%)
		X: 지(38.1%), 집(12.7%), 찰(6.3%), 치(6.3%)



씨앗	중성 ‘ㄷ’	O: 안(82.5%)
		X: 아(11.1%), 약(6.3%)
알맞다	중성 ‘ㄹ’	O: 알(88.9%), 일(4.8%)
		X: 암(3.2%), 아(1.6%), 안(1.6%)
알뜰	중성 ‘ㄹ’	O: 뜰(66.7%), 들(22.2%), 틀(7.9%)
		X: 뜨(3.2%)
맘껏	중성 ‘ㄱ’	O: 맘(96.8%)
		X: 망(3.2%)
사람	중성 ‘ㄱ’	O: 람(95.2%)
		X: 량(4.8%)
갑자기	중성 ‘ㄴ’	O: 갑(98.4%)
		X: 간(1.6%)
반갑다	중성 ‘ㄴ’	O: 갑(98.4%), 캅(1.6%)
		X: 없음

<표 38> 음절 구조 차이(자음)로 인한 발음 오류 양상

통계 결과에 따르면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중성 발음의 평균 오류율이 약 11%로 상당히 낮은 수치로써 대만인 학습자가 한국어 중성의 발음을 잘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의 발음 제약으로 한국어 대부분의 중성이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아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잘한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합리하지 않다. 따라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중성을 잘하는 이유를 찾아보았는데 그 이유는 대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언인 민남어에 있다고 보인다.

정지수·최규발(2012)에 따르면 대만에서 민남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65.9%나 차지한다. 즉, 대부분의 대만 사람이 민남어를 상당히 잘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연구의 발음 조사에 참여한 피험자의 민남어 실력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집계 결과에 따르면 평균 3.1점으로 이번 실험의 피험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민남어 실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조가유(2012)의

연구에 의하면 대만 민남어의 말음에 허용하는 발음은 /k/, /t/, /p/, /n/, /m/, /ŋ/, /h/ 총 7개가 있다. 한국어와 대조하면 /l/만 제외한 모든 종성이 존재한다. 결국 대만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종성을 잘 발음할 수 있는 이유는 대만인 학습자가 보편적으로 한국어와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는 민남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대만인 학습자가 중국어와 민남어에 존재하지 않는 /l/의 발음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오류율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어의 ‘r음화(儿音化)’<sup>68</sup>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鍾榮富(2015)에서 중국어의 음운 현상 중에 음절 말에 /r/를 추가한다는 음운 현상이 있으며 거의 모든 운모 뒤에 /r/를 추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이론상 중국어에 /r/말음이 존재하지만 음운 현상으로 실제 발음에 /r/말음이 존재한다. 결국 대만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l/발음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r/를 대체로 발음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발음의 유사성으로 한국어 화자가 /r/를 /l/로 인식하는 것이다.

## 2. 음소 결합 제약 오류

이 절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소 결합 제약 차이로 인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에 대하여 검토한다. 음소 결합 제약은 크게 자음 및 활음과 모음의 결합, 그리고 모음과 비음 자음의 결합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대만 학습자의 그 2가지 조합에 대한 발음 오류를 일일이 검토할 예정이다.

시작하기에 앞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소 결합 제약 차이에 의한 발음 오류의 전체 경향부터 살펴보겠다. 대만인 학습자의 가장 뚜렷한 발음 특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평균 발음 오류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다. 박나영(2010)과 이선(2014)에서 밝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율이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보다 2배 이상 높다. 물론 조사한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사 무리가 있겠지만 같은 주제의 연구로 발음 오류율의 큰

---

<sup>68</sup> 대만 일반 언어생활에 r음화 현상을 적용하지 않지만 국어 교재에서 r음화 현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r]를 발음할 수 있다.

차이를 통해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을 배울 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동일하게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방언이 상당히 다르다.

또한, 대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민남어의 음절 다양성이 중국어보다 높으며 한국어와 겹쳐진 부분이 많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는 음절을 대만 교육부에서 출판한 《대만 민남어 로마자 병음 사용 방안 수첩(台灣閩南語羅馬字拼音方案使用手冊)》에서 제시한 민남어 음절과 대조하여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음절	민남어 음절	한국어 음절	민남어 음절
배	pe /pe/	자	tsa /tsa/*
바	piah /pjaʔ/*	주	tsu /tsu/*
뵤/뵤/뵤	pue /pwe/	조	tso/tsə/, tsoo /tsə/*
봐	pua /pwa/	취	tsui /tswi/*
꽤/꽤	phe /p <sup>h</sup> e/	죄/죄/죄	tsue /tswe/*
파	phiah /phjaʔ/*	채/채	tshē /ts <sup>h</sup> e/*
매	me /me/	차	tsha /ts <sup>h</sup> a/*
마	mia /mja/	추	tshu /ts <sup>h</sup> u/*
기	ki /ki/	초	tsho /ts <sup>h</sup> ə/, tshoo /ts <sup>h</sup> ə/*
개/개	ke /ke/	취	tshui /ts <sup>h</sup> wi/*
고	ko /kə/, koo /kə/*	죄/죄/죄	tshue /ts <sup>h</sup> we/*
가	kia /kja/	새	se /se/
귀	kui /kwi/	소	so /sə/, soo /sə/*
괴	kue /kwe/	쉬	sui /swi/
키	khi /k <sup>h</sup> i/	죄/죄/죄	sue /swe/
캐/캐	khe /k <sup>h</sup> e/	좌	sua /swa/
코	kho /k <sup>h</sup> ə/, khoo /k <sup>h</sup> ə/*	래/래	le /le/
퀴	khui /k <sup>h</sup> wi/	로	lo /lə/, loo /lə/*

괴/쾌/퀘	khue /k <sup>h</sup> we/	좌	lua /lwa/
대/테	te /te/	히	hi /hi/
도	to /tə/, too /tɔ/*	해/헤	he /he/
뒤	tui /twi/	호	ho /hə/, hoo /hɔ/*
되/돼/뉘	tue /twe/	휘	hui /hwi/
태/테	the /t <sup>h</sup> e/	회/훼/휘	hue /hwe/
토	tho /t <sup>h</sup> ə/, thoo /t <sup>h</sup> ɔ/*	요	io /je/*
튀	thui /t <sup>h</sup> wi/	유	iu /ju/
퇴/퇴/튀	x	외/왜/웨	ue /we/
내/네	ne /ne/	위	ui /wi/
노	noo /nɔ/*	앤/엔	x
뉴	niu /nju/	은	x
뉘	x	운	x
뇌/뇌/뉘	x	앵/앵	x
뇌	nua /nwa/	웅	x
재/제	tse /tse/*		

<표 39>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 음절과 민남어 음절 대조

<표 39>에서 보듯이 중국어에서 찾을 수 없었던 한국어에 대응하는 음절을 대부분 민남어에서 찾을 수 있다. 그중에 몇 가지 한국어 음절과 완전히 대응하는 민남어 음절을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아주 비슷한 발음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민남어의 /e/, /a/, /ts/와 같은 발음은 현재 사용하는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지만 음향적 특성이 한국어의 /ɛ/, /a/, /tɕ/와 매우 흡사하여 대체하여 사용해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음향적 유사성으로 대만인 한국어 학습의 발음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음절도 있다. 본고에서 한국어 단모음 /o/의 대체품으로 보고 있는 /ɔ/와 /ɔ/는 바로 그런 예이다. 민남어에 한국어의 /o/와 대응하는 음소가 없기 때문에 /o/가 포함된 음절의 발음과 동일한 발음을 민남어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민남어에 /o/와 비슷한 음운 자질을 갖고 있는 /ɔ/와 /ɔ/가 있다. 그러한 음소로 한국어의 /o/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지만 발음 오

류 조사 결과를 통하여 대만인 한국어 학습의 발음 오류율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상의 음절을 제외하면 민남어에 비슷한 음절이라도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 음절이 8개밖에 없다.

본고에서 민남어의 숙달도와 한국어의 발음 학습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민남어 실력별 한국어 발음 오류율을 분석하였다<sup>69</sup>.

한국어 능력	민남어 말하기 능력	발음 오류율
초급	0	34.7%
	4	25.2%
중급	0	18.6%
	5	10.3%
고급	2	13.2%
	5	9.9%

<표 40> 민남어 능력별 한국어 발음 오류율

<표 40>에서 한국어 능력과 상관없이 대만인 학습자의 민남어 능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발음도 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초급과 중급 학습자의 경우에 각각 9.5%와 8.3%의 차이가 민남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고습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격차가 워낙 심하지 않기 때문에 민남어의 영향이 비교적으로 뚜렷하지 않지만 그래도 민남어를 잘하는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도 좀 더 좋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3가지 방법으로 민남어의 사용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민남어가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대만인 학습자의 두 번째 발음 특징은 평음과 격음의 구분을 잘 못하는 점이다.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평음이나 격음이 포함된 어휘에 대한 조사 결과

<sup>69</sup> 한국어 능력이 같은 수준의 학습자 중에서 민남어를 가장 잘하는 학습자와 가장 못하는 학습자들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에 거의 모두 평음과 격음의 혼동 오류가 나타난다. 평음과 격음의 구분은 본고의 주제인 음절과 큰 연관이 없지만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의 큰 문제로 원인을 찾아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중국어의 장애음은 한국어의 삼분 체계와 달리 조음 시 입 속에서 뿜어나오는 기류양으로 무기음과 유기음으로만 구분한다. 한국어의 삼분 체계에 중국어와 비슷한 기준으로 구분된 평음과 격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음과 무기음, 그리고 격음과 유기음을 직접 대응한다고 연상하기가 쉽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신지영(2011)에서 단순히 기식성의 측면으로 보면 평음이 격음보다는 약하지만 경음보다는 강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어와 한국어 장애음의 물리적 특성 직접 대조하는 연구는 소열녕(2008)이 있다. 소열녕(2008)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파열음의 VOT 평균값 대조 실험<sup>70</sup>을 하였고 한국인이 중국어 발음에 대한 인식 실험도 하였다. 소열녕(2008)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중국어 무기음의 성질이 한국어의 경음과 가깝고 유기음의 성질이 격음과 비슷하며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중국어의 무기음을 한국어의 경음으로 인식하고 유기음을 격음으로 인식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sup>71</sup>. 소열녕(2008)의

<sup>70</sup> 소열녕(2008)에서 제시한 한국어와 중국어 파열음의 VOT값 대조 결과

한국어	평음			경음			격음		
	ㅂ	ㄷ	ㄱ	ㅃ	ㄸ	ㄲ	ㅆ	ㅌ	ㅋ
남	43	37	58	6	7	16	88	79	134
여	36	53	76	8	12	23	76	74	94
중국어	무기음			유기음					
	b	d	g	p	t	k			
남	10	14	37	102	110	113			
여	12	13	21	123	120	121			

<sup>71</sup> 소열녕(2008)에서 제시한 한국어 화자가 중국어 파열음에 대한 인식 결과

巴(ba)	趴(pa)	低(di)	梯(ti)	孤(gu)	枯(ku)
ㅃㅏ 98.33%	ㅃㅏ 98.33%	ㅌㅎ 96.66%	ㅌㅎ 96.67%	ㅁㅜ 85%	ㅋㅜ 96.66%
ㅂㅏ 1.67%	ㅃㅏ 1.67%	ㅌㅎ 1.67%	ㅍㅎ 3.33%	ㅁㅜ 11.66%	ㅋㅜ 1.67%
-	-	ㅃㅎ 1.67%	-	ㄱㅜ 1.67%	ㅋㅜ 1.67%
-	-	-	-	ㅋㅜ 1.67%	-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인지적으로 한국어의 평음과 격음은 중국어 화자에게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인 화자의 한국어 발음 인식에 대한 연구는 Holliday(2014)가 있다. Holliday(2014)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중국어 화자가 한국어의 평음과 격음을 중국어의 유기음으로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sup>72</sup>.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앞서 중국어 화자가 한국어의 평음과 격음을 중국어의 유기음으로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추측을 입증할 수 있다. 게다가 Holliday(2014)에서 중국어 화자가 한국어 발음을 잘못 인식하는 원인도 언급하였는데 그것은 두 언어 발음의 VOT값 차이이다. Holliday(2014)에 의하면 한국어 평음의 VOT값은 중국어 무기음의 VOT값과 비슷하고 한국어 평음과 격음의 VOT값은 중국어 유기음의 VOT값과 유사하기 때문에 중국어 화자가 한국어의 두 발음을 혼동한다.

<sup>72</sup> Holliday(2014)에서 제시한 중국어 화자가 한국어 파열음에 대한 인식 결과

한국어 중국어	/pa/	/p <sup>h</sup> a/	/p <sup>*</sup> a/	/pi/	/p <sup>h</sup> i/	/p <sup>*</sup> i/	/pu/	/p <sup>h</sup> u/	/p <sup>*</sup> u/
/p <sup>h</sup> /	99	99	-	77	100	-	88	98	-
/p/	-	-	100	22	-	95	9	-	85
/t <sup>h</sup> /	1	1	-	-	-	-	-	2	-
/t/	-	-	-	1	-	4	-	-	-
/f/	-	-	-	-	-	-	3	-	14
한국어 중국어	/ta/	/t <sup>h</sup> a/	/t <sup>*</sup> a/	/ti/	/t <sup>h</sup> i/	/t <sup>*</sup> i/	/tu/	/t <sup>h</sup> u/	/t <sup>*</sup> u/
/p <sup>h</sup> /	16	1	-	-	-	-	1	2	-
/p/	-	-	8	-	-	-	-	-	-
/t <sup>h</sup> /	82	92	-	99	99	-	82	96	-
/t/	-	-	92	-	-	99	15	-	100
/k <sup>h</sup> /	1	4	-	-	1	-	-	-	-
한국어 중국어	/ka/	/k <sup>h</sup> a/	/k <sup>*</sup> a/	/ki/	/k <sup>h</sup> i/	/k <sup>*</sup> i/	/ku/	/k <sup>h</sup> u/	/k <sup>*</sup> u/
/t <sup>h</sup> /	-	-	-	22	9	-	-	-	-
/t/	-	-	-	-	-	36	-	-	-
/k <sup>h</sup> /	99	96	1	65	79	-	84	99	-
/k/	-	-	99	1	-	62	15	1	98
/ts <sup>h</sup> /	1	4	-	-	-	-	-	-	-
/tɕ <sup>h</sup> /	-	-	-	6	10	-	-	-	-
/tɕ/	-	-	-	2	-	-	-	-	-
/tʃ <sup>h</sup> /	-	-	-	2	2	-	-	-	-



## 2.1 자음 및 활음과 모음의 결합

한국어 자음과 모음은 임의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가능한지는 자음과 모음의 음운 자질에 달려 있다. 또한, 음운 자질 중에서도 자음의 조음 위치와 연관된 자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자음의 조음 위치를 기준으로 조를 지어 대만인 한국어 학습의 발음 오류를 분석하겠다.

조사 어휘	조사 목표	조사 결과
배	배/베	O: 배(81.0%)
		X: 꽤(12.7%), 매(4.8%), 태이(1.6%)
바비다	바	O: 바(36.5%)
		X: 파(44.4%), 빠(19.0%)
되다	되/베/웨	O: 되(33.3%)
		X: 배(28.6%), 쫌(4.8%), 빔(4.8%), 배이(3.2%), 꽤(3.2%), 뷔(3.2%), 뷔(3.2%), 피(3.2%), 비(1.6%), 빔(1.6%), 불(1.6%), 브이(1.6%), 불(1.6%), 비이(1.6%), 푸이(1.6%)
봐주다	봐	O: 봐(88.9%)
		X: 바(6.3%), 파(1.6%), 발(1.6%), 바알(1.6%)
꽤다	꽤/꽤	O: 꽤(50.8%)
		X: 배(28.6%), 뵈(9.5%), 매(4.8%), 뵈(3.2%), 꽤이(3.2%), 뵈(1.6%)
대 꽤		O: 꽤(81.0%)
		X: 배(17.5%), 뵈(2%)
파하	파	O: 파(77.8%)
		X: 바(17.5%), 빠(3.2%)
매우	매/메	O: 매(100%)
		X: 없음



몸매		O: 매(100%)
		X: 없음
마알마알	ㅁ	어두O: ㅁ(100%)
		어두X: 없음
		어중O: ㅁ(100%)
		어중X: 없음

<표 41> 양순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양순 자음과 모음 결합의 경우에 민남어에도 존재하는 음절이 대부분이어서 굉장히 높은 발음 정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오류가 나더라도 중국어의 발음 특성에 평음과 격음을 헛갈리는 양상으로 나온다. /pja/와 /pʰe/의 경우에는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오류가 주로 격음을 평음으로 발음하는 식으로 나온다. 결국 앞서 제시한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음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영세한 오류는 양이 매우 적어 특정한 제약이나 음절 구조 차이로 발생한 오류라고 단정하기 부적절하기 때문에 우발적 발음 오류로 본다.

한편, /pwe/에 경우에는 다른 음절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pwe/의 오류 양상 분포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다. /pwe/도 다른 음절과 동일하게 민남어에 대응하는 음절이 있는 음절이지만 발음 정확률이 33%로 상당히 낮다. /pwe/가 다른 음절과 달리 발음 정확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찾기 위하여 /pwe/의 오류 분포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정확하게 소리를 낸 21개 샘플 중에 16개는 민남어 말하기 실력 자체 평가를 3점 이상으로 한 학습자가 녹음한 것이다. 결과를 통하여 /pwe/라는 음절은 민남어 화자에게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음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we/를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학습자가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발음할 수밖에 없다.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이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한 가지 경향이 있다. 그것은 /pwe/를 상대적으로 단순한 단모음으로 형성된 [pɛ]와 [pei]로 풀어서 발음한 것으로 본다.

치경 자음의 양이 많아 여기에서 다시 조음 방법을 기준으로 나눠서 살펴보겠다. 먼저 치경 파열음과 모음의 결합부터 본다.

조사 어휘	조사 목표	조사 결과
대다	대/태	O: 대(65.1%)
		X: 태(20.6%), 퇴(7.9%), 댕(3.2%), 대이(1.6%), 댕(1.6%)
도둑	도	O: 도(81.0%)
		X: 토(17.5%), 또(1.6%)
뒤	뒤	O: 뒤(81.0%)
		X: 튀(7.9%), 뛰(4.8%), 투이(3.2%), 퇴(1.6%), 뉘이(1.6%)
태어나다	태/태	O: 태(100%)
		X: 없음
이르테면		O: 태(100%)
		X: 없음
토끼	토	O: 토(98.4%)
		X: 터(1.6%)
그토록		O: 토(85.7%)
		X: 도(14.3%)
튀하다	퇴/땀/튀	O: 퇴(76.2%)
		X: 퇴(12.7%), 대(7.9%), 꺾(1.6%), 태(1.6%)
수땀지		O: 퇴(90.5%)
		X: 태(7.9%), 튀(1.6%)

<표 42> 치경 파열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치경 파열음도 양순음과 마찬가지로 민남어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발음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류 양성도 평음과 격음의 혼용하는 식으로 주로 나온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중국어와 민남어에 모두 대응하는 음절이 존재하지 않는 /t<sup>h</sup>wɛ/의 발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 /t<sup>h</sup>wɛ/의 발음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어에 /t<sup>h</sup>wɛ/와 비슷한 ‘推/t<sup>h</sup>wɛj/’라는 음절이 존재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한국어 원어민이 중국어 ‘~/ɛj/’ 발음에 대한 인식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 결과에 의하면 약 60%의 피험자는 /ɛj/를 한국어의 /ɛi/로 인식하고 다른 40%는 /ɛ/로 인식한다. 절반에 가까이 한

국어 화자가 중국어의 /ej/을 단모음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통하여 한국어 화자에게 중국어 하양 이중모음인 /ej/의 핵음 후 활음인 /j/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원인으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tʰwɛ/의 발음을 잘 파악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조사 어휘	조사 목표	조사 결과
새	새/세	O: 새(90.5%)
		X: 썩(7.9%), 썩(1.6%)
O: 새(100%)		
X: 없음		
냄새	소	O: 소(93.7%)
X: 쏘(6.3%)		
O: 소(93.7%)		
X: 수(3.2%), 송(1.6%), 쑤(1.6%)		
고소하다	취	O: 취(85.7%)
X: 쥘(4.8%), 쥘(1.6%), 쥘(1.6%), 쥘(1.6%), 쥘(1.6%), 쥘(1.6%), 쥘(1.6%)		
O: 취(98.4%)		
X: 쇠(1.6%)		
아쉬움	좌	O: 좌(68.3%)
X: 좌(17.5%), 샤(7.9%), 쇠(4.8%), 썩(1.6%)		
O: 좌(63.5%)		
X: 좌(19.0%), 샤(7.9%), 샤(4.8%), 쇠(1.6%), 쇠(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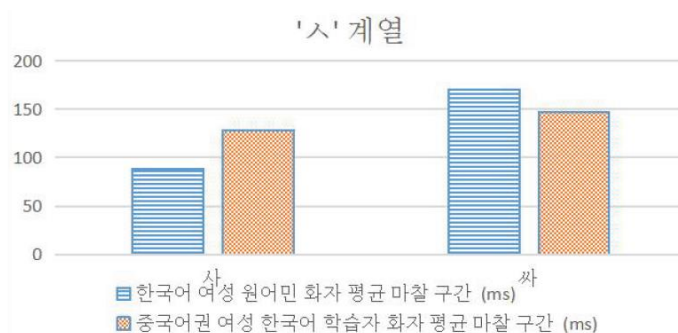
<표 43> 치경 마찰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치경 마찰음의 경우에도 민남어에 영향으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어렵지가 않다. 다만, 여기에서 평음과 경음을 혼용하는 오류가 간혹 나온다. 이것도 앞에서 언급한 평음과 격음의 혼동과 마찬가지로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음 특성으로 초래된 오류이다.

왕요(2018)<sup>73</sup>에 의하면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ㅅ’계열의 평음 발음의 평균 마찰 구간 길이가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평음 마찰 구간 길이보다 길지만 경음 발음의 평균 마찰 구간 길이가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평음 마찰 구간 길이보다 짧다. 즉, 중국어권 학습자가 ‘ㅅ’계열 발음이을 모두 한국어 /s/와 /s\*/의 중간 발음으로 실현한다. 중국어권 학습자가 이러한 발음 특성으로 한국어 원어민을 헛갈리게 하는 발음 실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어휘	조사 목표	조사 결과
내리다	내/네	O: 내(100%)
		X: 없음
보내다	내/네	O: 내(100%)
		X: 없음
노래	노	O: 노(100%)
		X: 없음
콧노래	노	O: 노(100%)
		X: 없음
뉴동	뉴	O: 뉴(79.4%)
		X: 뉘(6.3%), 닌(4.8%), 눈(4.8%), 뉘(1.6%), 뉘(1.6%), 을(1.6%)
뉘두다	뉘	O: 뉘(88.9%)

<sup>73</sup> 왕요(2018)에서 제시한 한국어 화자와 중국어 화자의 한국어 ‘ㅅ’계열 발음의 마찰 구간 길이 대조 결과



		X: 뇌(4.8%), 노아(1.6%), 다(1.6%), 되(1.6%), 봐(1.6%)
--	--	---

<표 44> 치경 비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치경 비음의 경우도 민남어에 대응하는 음절이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굉장히 높은 발음 정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 /nwa/를 [nwe]로 잘못 발음하는 오류는 음절의 영향보다 학습자가 한글을 잘못 읽은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nwa/와 /nwe/가 음성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며 /nwe/가 중국어와 민남어에서 모두 찾을 수 없는 음절로 대만인 학습자가 두 음절의 발음을 혼동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뇌’와 ‘뇌’ 형태적인 유사성으로 대만인 학습자가 잘못 읽은 것은 더욱 적절한 결론이다.

그리고 /nju/의 발음 오류 양상에서 종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약 16%가 [nwe]로 잘못 발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nwe/는 중국어와 민남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절로 대만인 학습자가 어떤 음절의 발음을 [nwe]로 대치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대만인 학습자가 발음한 ‘뇌’를 [nwe]보다 [ny]로 보고 있다. 중국어에 /nwe/라는 음절이 존재하지 않지만 ‘女/ny/’와 같은 음절이 있다. 게다가 /y/은 원순 고모음으로 /nwe/보다 /nju/와의 성질이 더 가깝다. 또한, 박경래(1992)에서 한국어 화자 ‘니’와 ‘기’의 단모음 발음 인지 실험을 하였는데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화자가 ‘기’의 단모음 발음에 대한 인지 능력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 이상의 증거로 대만인 학습자가 /nju/를 [ny]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어휘	조사 목표	조사 결과
오래	래/레	O: 래(93.7%)
		X: 내(4.8%), 퇴(1.6%)
바로	로	O: 로(100%)
		X: 없음
무좌가다	좌	O: 좌(22.2%)
		X: 라(66.7%), 나(3.2%), 화(1.6%), 뇌(1.6%), 러(1.6%), 하

		(1.6%)
--	--	--------

<표 45> 치경 유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표 45>에서 보듯이 치경 유음의 경우에는 /lwa/의 발음에만 오류가 많이 나며 정확률이 28%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못하는 발음이다. 대만인 학습자가 /lwa/의 소리를 제대로 못 내는 이유는 /lwa/를 대응하는 음절인 /lwa/가 민남어에 존재하더라도 매우 생소한 음절이다. 대만 교육부에서 만든 대만 민남어 사전에 등재하는 /lwa/에 해당하는 한자가 단 3개뿐이어서 대만인 학습자에게 /lwa/의 발음이 생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만 학습자가 /wa/를 단모음 /a/으로 풀어 중국어에 존재하는 /la/로 발음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조사 어휘	조사 목표	조사 결과
채다	채/채	O: 채(57.1%)
		X: 채(31.7%), 새(3.2%), 쟈(3.2%), 꺾(3.2%), 죄(1.6%)
자주	자	O: 자(95.2%)
		X: 차(4.8%)
주머니	주	O: 주(95.2%)
		X: 쭈(3.2%), 추(1.6%)
조금	조	O: 조(49.2%)
		X: 쯤(44.4%), 초(6.3%)
좌르르하다	좌	O: 좌(42.9%)
		X: 좌(34.9%), 죄(9.5%), 죄(6.3%), 자(3.2%), 차(1.6%), 취(1.6%)
채우다	채/채	O: 채(84.1%)
		X: 채(9.5%), 치(4.8%), 새(1.6%)
부채	채/채	O: 채(98.4%)
		X: 채(1.6%)
차갑다	차	O: 차(96.8%)

		X: 참(1.6%), 찹(1.6%)
옷차림		O: 차(100%)
		X: 없음
추위	추	O: 추(90.5%)
		X: 주(6.3%), 추이(1.6%), 취(1.6%)
고추	추	O: 추(87.3%)
		X: 주(9.5%), 취(3.2%)
초라하다	초	O: 초(95.2%)
		X: 최(3.2%), 조(1.6%)
녹초	초	O: 초(100%)
		X: 없음

<표 46> 치경경구개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치경경구개 자음과 모음의 결합에서 발생한 오류도 대부분 평음과 격음의 혼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대만인 학습자가 /tɕo/를 /tɕ\*o/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다. 오류 분포를 살펴보면 /tɕ/를 /tɕ\*/로 잘못 발음하는 샘플은 총 28개인데, 이 중에 초, 중, 고급 학습자가 녹음한 샘플은 각각 6, 8, 14개가 있다. 결과를 통하여 이러한 오류는 한국어 능력과 연관이 없이 대만인 학습자끼리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심지어 한국어를 잘할수록 오류를 더 많이 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앞서 언급한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음 특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중국어권 학습자가 평음과 격음을 혼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평음과 격음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음 특성보다 한국어 화자가 구어로 강조를 표현할 때 [tɕokum]보다 [tɕ\*okum]과 더 가까운 소리로 발음하는 현상으로 유래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조사 어휘	조사 목표	조사 결과
기름	기	O: 기(95.2%)
		X: 길(3.2%), 키(1.6%)



개	개/개	O: 개(92.1%)
		X: 캐(7.9%)
고기	고	O: 고(88.9%)
		X: 코(11.1%)
가우똥하다	가	O: 가(88.9%)
		X: 카(7.9%), 까(3.2%)
키	키	O: 키(81.0%)
		X: 기(14.3%), 끼(3.2%), 히(1.6%)
지키다	키	O: 키(90.5%)
		X: 기(4.8%), 끼(3.2%), 김(1.6%)
캐다	캐/캐	O: 캐(73.0%)
		X: 개(25.4%), 케이(1.6%)
암캐	캐/캐	O: 캐(90.5%)
		X: 개(6.3%), 깨(3.2%)
코	코	O: 코(90.5%)
		X: 콧(7.9%), 고키(1.6%)
잠자코	코	O: 코(73.0%)
		X: 고키(27.0%)

<표 47> 경구개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경구개 자음과 모음 결합의 발음 오류가 매우 단순하다. 모두 민남어에 대응하는 음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어렵지 않다.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음 특성으로 평음과 격음을 혼용하는 오류를 제외하면 특별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조사 어휘	조사 목표	조사 결과
히득거리다	히	O: 히(100%)
		X: 없음



마땅히		O: 히(81.0%)
		X: 이(14.3%), 기(3.2%), 끼(1.6%)
해	해/헤	O: 해(100%)
		X: 없음
새해		O: 해(100%)
		X: 없음
호두	호	O: 호(96.8%)
		X: 혼(3.2%)
개호주		O: 호(100%)
		X: 없음

<표 48> 성문 자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성문 자음과 모음의 결합도 민남어의 영향으로 대만인 한국어 학습의 발음에 큰 오류가 있지 않았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hi/가 어중에 나타날 때 상당 비율의 학습자가 [i]로 발음하는 것을 집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음절 차이로 인한 오류라고 정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hi/가 어두에 나타날 때 이러한 현상을 아예 관찰하지 못한다. 따라서 /hi/를 [i]로 발음하는 오류는 학습자가 발음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탈락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유난히 발음을 잘하지 못하는 자음과 /wi, we/의 조합을 따로 토론하고자 한다.

조사 어휘	조사 목표	조사 결과
되게	되/돼/뉘	O: 되(69.8%)
		X: 뒤(14.3%), 대(4.8%), 튀(4.8%), 뉘(1.6%), 뉘이(1.6%), 뉘 (1.6%), 투이(1.6%)
튀기다	튀	O: 튀(73.0%)
		X: 퇴(12.7%), 뉘(7.9%), 뛰(4.8%), 뒤(1.6%)
뽕튀기		O: 튀(82.5%)

		X: 뒤(4.8%), 뛰(4.8%), 퇴(4.8%), 데(1.6%), 뒤(1.6%)
쇠	쇠/쇄/쇄	O: 쇠(55.6%)
		X: 쉬(15.9%), 썩(11.1%), 새(4.8%), 쇠이(3.2%), 썩(1.6%), 술(1.6%), 철(1.6%), 썩이(1.6%), 썩(1.6%), 썩이(1.6%)
구두쇠		O: 쇠(71.4%)
		X: 쉬(15.9%), 쇠이(3.2%), 썩(1.6%), 술(1.6%), 수이(1.6%), 철(1.6%), 썩이(1.6%), 쇠(1.6%)
뉘우치다	뉘	O: 뉘(63.5%)
		X: 뉘(17.5%), 누(12.7%), 니(3.2%), 내(3.2%)
나뉘다		O: 뉘(71.4%)
		X: 누(14.3%), 뉘(11.1%), 뉘(1.6%), 누(1.6%)
뉘다	뉘/뉘/뉘	O: 뉘(57.1%)
		X: 뉘(27.0%), 노이(4.8%), 뉘(4.8%), 내(1.6%), 내이(1.6%), 누이(1.6%), 뉘(1.6%)
되뉘다		O: 뉘(66.7%)
		X: 뉘(17.5%), 나(3.2%), 누(3.2%), 내(3.2%), 뉘(1.6%), 노이(1.6%), 뉘(1.6%), 누이(1.6%)
쨌	쨌	O: 쨌(15.9%)
		X: 쨌(58.7%), 쇠(15.9%), 쨌(3.2%), 위(1.6%), 쨌(1.6%), 쇠(1.6%), 쨌이(1.6%)
쨌다	쨌/쇄/쇄	O: 쇠(49.2%)
		X: 쇠(30.2%), 쨌(7.9%), 쨌(4.8%), 초(3.2%), 쇠이(1.6%), 조(1.6%), 채(1.6%)
쨌다	쨌	O: 쨌(60.0%)
		X: 치(20.6%), 쨌(9.5%), 쇠(3.2%), 채(1.6%), 철(1.6%), 쨌(1.6%), 쨌(1.6%), 쇠이(1.6%), 쨌(1.6%)
자쨌		O: 쨌(79.4%)
		X: 쨌(6.3%), 쇠(6.3%), 주(4.8%), 쇠(1.6%), 쨌(1.6%)

최활	최/채/취	O: 최(60.3%)
		X: 채(25.4%), 취(6.3%), 죄(4.8%), 재(3.2%)
애최	최/채/취	O: 최(73.0%)
		X: 취(22.2%), 죄(4.8%)
귀	귀	O: 귀(79.4%)
		X: 괴(9.5%), 퀴(7.9%), 귀이(1.6%), 쥐(1.6%)
괴로움	괴/괘/궤	O: 괴(74.6%)
		X: 귀(15.9%), 퀴(7.9%), 죄(1.6%)
퀴다	퀴	O: 퀴(57.1%)
		X: 귀(14.3%), 키(9.5%), 괴(4.8%), 궤(3.2%), 필(1.6%), 글(1.6%), 클(1.6%), 쉼(1.6%), 퀴(1.6%), 튀(1.6%), 휘(1.6%)
할퀴다	퀴	O: 퀴(74.6%)
		X: 괴(14.3%), 키(7.9%), 귀(4.8%), 궤(3.2%), 괴(1.6%)
괴괴하다	괴/괘/궤	O: 괴(58.7%)
		X: 퀴(17.5%), 괴(7.9%), 귀(4.8%), 궤(3.2%), 궤이(3.2%), 캐(3.2%)
배괴	괴/괘/궤	O: 괴(58.7%)
		X: 퀴(17.5%), 괴(7.9%), 귀(4.8%), 캐(3.2%), 궤(3.2%), 궤이(3.2%), 궤(1.6%)
휘감다	휘	O: 휘(84.1%)
		X: 회(15.9%)
휘휘	휘	O: 휘(87.3%)
		X: 회(12.7%)
꽤나무	꽤/쾌/궤	O: 회(95.2%)
		X: 휘(4.8%)
회회	회/쾌/궤	O: 회(74.6%)
		X: 휘(19.0%), 회이(3.2%), 휘이(3.2%)

<표 49> /n, te, te<sup>h</sup>, k, k<sup>h</sup>, g/ + /wi, we/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이런 조합의 음절들이 서로 연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만인 한국어 학습의 한 가지 발음 특성이 담겨 있다. 그것은 바로 /wi/와 /we/를 혼동하는 현상이다. 이 음절들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모두 /wi/와 /we/를 혼동하는 오류가 발생하며 최대 27%의 혼용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류 분포를 보면 초, 중급 학습자 위주로 이런 오류를 범하며 고급 학습자도 간혹 범하는 경우가 있다.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끼리에 거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발음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분절음의 발음 특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wi/와 /we/가 발음 특성상 혼동할 만한 점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음절 구조 차이의 측면으로도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나열한 음절들은 /nwi/와 /nwe/만 제외하면 모두 민남어에 대응하는 음절이 존재하는 것이다. /nwi/와 /nwe/의 짝이라고 하더라도 둘 다 민남어에 대응하는 음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음절과 유사한 조건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상의 음절 조합의 둘 음절 중에 어느 하나가 대만인 학습자에게 발음하기가 더 쉬워서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다.

조사 어휘	조사 목표	조사 결과
외로움	외/왜/웨	O: 외(84.1%)
		X: 위(12.7%), 휘(3.2%)
되외다		O: 외(77.8%)
		X: 위(15.9%), 의(3.2%), 윈(1.6%), 이(1.6%)
위	위	O: 위(100%)
		X: 없음
가위		O: 위(100%)
		X: 없음

<표 50> /wi/와 /we/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현재까지 /wi/와 /we/의 혼동 오류에 대하여 찾을 수 있는 단서가 하나뿐이다. 그것은 /wi/와 /we/가 단독으로 나타날 때도 비슷한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대만인 학습자가 /wi/를 [we]로 잘못 발음하는 사례는 없지만 약 14%의

학습자가 /we/를 [wi]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한다. 결국 /n, tɛ, tɛ<sup>h</sup>, k, k<sup>h</sup>, g/ + /wi, we/의 결합에 /wi/와 /we/를 혼용하는 현상은 /wi/와 /we/의 혼동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wi/와 /we/의 혼동은 어느 특정한 음절의 차이로 인한 발음 오류보다 /wi/와 /we/의 발음 자체가 대만인 학습자에게 발음하기가 불편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더욱 편한 발음을 찾는 과정에서 혼용이 발생한 것이다.

다음으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활음과 모음의 결합에 대한 발음 오류를 살펴보겠다.

조사 어휘	조사 목표	조사 결과
요즘	요	O: 요(98.4%)
		X: 여(1.6%)
고요	요	O: 요(100%)
		X: 없음
유난히	유	O: 유(100%)
		X: 없음
구유	유	O: 유(96.8%)
		X: 융(3.2%)
외로움	외/왜/웨	O: 외(84.1%)
		X: 위(12.7%), 휘(3.2%)
되외다	외/왜/웨	O: 외(77.8%)
		X: 위(15.9%), 외(3.2%), 원(1.6%), 이(1.6%)
위	위	O: 위(100%)
		X: 없음
가위	위	O: 위(100%)
		X: 없음

<표 51> 활음과 모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대만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활음과 모음의 결합의 발음에 대한 발음 요령을 잘

파악하는 것을 <표 51>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민남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국어 음절	민남어 음절	한국어 음절	민남어 음절
요	io /jə/*	외/왜/웨	ue /we/
유	iu /ju/	위	ui /wi/

<표 52>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 음절과 민남어 음절 대조(활음+단모음)

<표 52>에서 보듯이 확음과 모음의 결합도 모두 민남어에 대응하는 음절이 존재한다. 다만 /we/를 [wi]로 잘못 발음하는 것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가 자기에게 더 편한 발음을 선호하는 발음 책략으로 일어난 발음 현상이다.

## 2.2 모음과 비음 자음의 결합

조사 어휘	조사 목표	조사 결과
앤생이	앤/엔	O: 앤(27.0%)
		X: 앵(54.0%), 앹(15.9%), 애(3.2%)
온갓	온	O: 온(41.3%)
		X: 옹(49.2%), 움(9.5%)
가온북	온	O: 온(50.8%)
		X: 움(27.0%), 옹(17.5%), 오(4.8%)
윤뚝뚝이	윤	O: 윤(54.0%)
		X: 융(28.6%), 움(11.1%), 유(3.2%), 균(1.6%), 윈(1.6%)
꼭지윤노리 나무	윤	O: 윤(87.3%)
		X: 유(7.9%), 융(3.2%), 움(1.6%)
앵하다	앵/앵	O: 앵(63.5%)
		X: 앤(20.6%), 애(12.7%), 앹(1.6%), 행(1.6%)
앵앵	앵/앵	O: 앵(69.8%)

		X: 앤(27.0%), 애(3.2%)
옹크리다	옹	O: 옹(79.4%)
		X: 움(12.7%), 운(3.2%), 오(1.6%), 우(1.6%), 응(1.6%)
뒤옹	옹	O: 옹(20.6%)
		X: 움(55.6%), 운(20.6%), 등(3.2%)

<표 53> 모음과 비음 자음 결합의 대만인 한국어 학습 발음 오류 양상

모음과 비음 자음의 결합은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음 정확률이 가장 떨어지는 조합이다. 이런 조합에 대만인 학습자의 평균 발음 오류율은 45.1%로 일반 중국어권 학습자의 평균 오류율과 비슷하다. 지금까지 대만인 학습자가 민남어의 영향으로 일반 중국어권 학습자보다 한국어 발음을 잘 파악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어와 민남어의 경우에는 중성과 비음 중성의 결합이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열하는 음절들은 중국어와 민남어에서 대응하는 음절을 찾을 수 없다. 결국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음절들을 배울 때 그대로 옮겨서 발음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발음 오류를 범하고 있다.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을 분석하면 비음 중성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고 다른 비음으로 대체하는 오류가 주로 나온다. 그 이유는 /e/나 /ɛ/, 그리고 /ju/, /o/, /u/가 중국어나 민남어에서 단독으로 비음 말음의 결합이 상당히 드물다. 이상의 이유로 대만인 학습자가 이런 조합의 한국어 음절을 정확히 인식하지도 못하며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결국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런 계열의 음절에 대한 발음 책략은 비음 계열의 자음을 임의로 선택하여 발음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제시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음절 구성의 차이가 학습자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절을 발음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도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음절 구성 제약을 받아 한국어 발음을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만 대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언인 민남어의 음절이 한국어와 많이 겹쳐진다는 점으로 일반 중국어권 학습자

보다 한국어의 발음 요령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대만인 학습자의 발음 문제는 대략 모음과 비음 자음 결합의 발음 오류, 평음과 격음의 혼동, /wi/와 /we/의 혼동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교육을 위하여 음절의 관점으로 대만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와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연구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가 상당히 많다. 게다가 기존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분절음과 초분절음을 중심으로 연구해 오기 때문에 분절음의 발음 교육은 현재 해결해야 하는 한국어 발음 교육의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분절음의 발음 교육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일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여전히 많은 발음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발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음소의 차이 이외에도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본고에서 음절의 관점으로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연구하였다.

본고에서 음소 체계, 음절 구조, 음소 결합 제약 3가지 기준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체계를 정리해 보았다. 음소 체계를 다시 자음, 모음, 활음을 나눌 수 있는데 한국어와 중국어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자음의 한국어와 중국어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음소가 겹쳐진다. 그러나 발성 유형에서 두 언어가 뚜렷한 차이가 난다. 한국어의 평음, 격음, 경음을 구분하는 삼분체계와 달리 중국어는 유기음과 무기음 2가지 발성 유형만 존재한다.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가장 심각한 발음 문제 중 하나인 평음과 격음의 혼동은 바로 이러한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또한, 모음의 체계의 경우도 한국어와 중국어가 동일하게 혀의 전후 위치, 입술의 모양, 개구도 3가지 기준으로 모음을 분류하여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다양한 후설 모음이 있지만 중국어에는 후설 모음이 /u/와 /o/ 2개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활음의 체계도 상당히 유사한데 /ɥ/와 /y/의 존재로 차이가 난다.

음절 구조의 경우에는 두 언어 모두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어 구조가 동일하다. 다만, 한국어는 중성 앞에만 활음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는 중성의 앞자리뿐만 아니라 뒷자리에도 활음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차이로 한국어 화자가 중국어의 하향 이중모음을 2개 연속의 단모음으로 인지하고 발음하

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반대된 경우에는 실험 결과를 통하여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2개 단모음의 연속을 하양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단모음을 잘 구분하여 발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중성 뒤에도 활음이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 한국어보다 다양한 음절 유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의 음절이 한국어보다 많아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엄한 음소 결합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음소 결합 제약의 제한으로 같은 음절 유형의 조선 아래에서 중국어의 음절 표현력이 한국어보다 떨어진다. 따라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을 배울 때 익숙하지 못한 발음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발음들이 발음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높다<sup>74</sup>.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소 체계, 음절 구조, 음소 결합 제약의 차이를 근거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어려운 발음을 예측하고 발음 조사를 하였는데 결과에 따르면 대만인 초, 중, 고급 학습자의 발음 오류율은 각각 28.2, 18.3, 12.1%였고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 좋아질수록 발음 오류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보인다. 대만인 학습자의 유형별 발음 오류율을 살펴보면 음절 구조 제약의 차이로 인한 발음 오류율은 평균 11.1%였고 음소 결합 제약의 차이로 인한 발음 오류율은 평균 19.9%였다. 이를 통하여 대만인 학습자에게 음조 구조보다 음소 결합이 발음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는 크게 4가지 발음 특징이 있다. 그것은 일반 중국어권 학습자 학습자보다 낮은 발음 오류율, 평음과 격음의 혼동, /wi/와 /we/의 혼동, 모음과 비음 자음 결합의 발음 오류이다. 먼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의 평균 발음 오류율은 20.5%로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율<sup>75</sup>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되지 않았다. 대만인 학습자가 발음을 더 잘하는 원인은 대만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언인 민남어에 있다. 민남어는 중국어와 달리

<sup>74</sup>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대조는 제2장 표. 17, 18, 19 참조.

<sup>75</sup> 박나영(2010)과 이선(201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율은 각각 53%와 52%였다.

한국어와 겹쳐진 음절이 많다. 따라서 민남어의 사용은 대만인 학습자에 발음에 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평음과 격음을 혼동하는 오류는 바로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와 중국어의 발성 유형 차이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평음과 격음은 같이 기식성을 가지는 음소로 중국어 화자에게 유기음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 차이로 중국어권 학습자가 한국어의 평음과 격음을 같은 소리로 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wi/와 /we/의 혼동 오류는 아직 분명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한 비율의 대만인 학습자가 /wi/와 /we/를 구분하지 못한다. 현재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wi/와 /we/의 발음이 모두 대만인 학습자에게 어려운 발음이기 때문에 발음할 때 학습자가 자기에게 더 쉬운 발음을 택하여 발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음과 비음 자음의 결합이 모든 음절 조합 중에서 대만인 학습자가 가장 못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같이 대만인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원인은 민남어와 한국어의 음절이 중첩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음과 비음 자음의 결합은 민남어에도 드문 존재이다. 따라서 대만인 학습자가 이런 조합의 음절에 서투를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는 대부분 중국어를 사용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하여 똑같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여도 발음 양상은 지역 방언의 영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학습자의 발음은 중국어에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사용하는 방언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중국어권 학습자에게 한국어 발음 교육을 하려면 각 지역 방언을 맞추어 발음 교육 방안을 세우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다.

이어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방안 개발에 민남어의 영향을 무시하고 중국어 화자의 보편적인 발음 특성만 고려하여 만들면 비효율적인 교육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대만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교육의 개발을 위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교육 방안을 개발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남어와 한국어가 중첩된 음절이 많아 대만인 학습자가 대부분의 한국어 발음 요령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모음과 비음 자음의 결합이 중국어와 민남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인 학습자가 그런 발음에 매우 약하다. 따라서 대만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방안을 설계할 때 모음과 비음 자음의 결합에 대하여 많이 다뤄야 한다.

둘째, 대만인 학습자가 민남어의 사용으로 일반 중국어권 학습자에 비하면 음절 체계 차이로 인한 발음 오류는 잘 범하지는 않지만 중국어권 학습자의 공통적 발음 특성에 의한 발음 오류는 대만인 학습자도 피할 수 없다.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대만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중에 상당한 비율은 평음과 격음, 그리고 평음과 경음을 혼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만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자음의 삼분체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해야 정확히 발음할 수 있는지는 교육 방안 개발 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이다.

셋째, 대만인 학습자 발음 상 더 한 가지의 문제는 /wi/와 /we/의 구분이다. 대만인 학습자가 이런 발음 오류를 범하는 이유를 지금까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만인 학습자가 /wi/와 /we/의 구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에 대만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육에 /wi/와 /we/의 구분은 해결해야 하는 세 번째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앞선 3가지 문제 이외에도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해당하는 자잘한 발음 오류도 있다. 대부분은 대만인 학습자가 사용하는 중국어와 민남어에 대응하지 않는 음절들이다. 앞선 3가지 문제처럼 체계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교육법을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만인 한국어 학습의 발음 양상 조사를 통하여 대만인 학습자에게 발음하기 어려운 음절을 밝혔고 이론적 측면으로 학습자가 발음 오류를 범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발음 교육 방안을 설계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와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직 다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발음 교

육 방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습자 발음 오류의 구체적 해결 방안은 시급한 과제이다.



## 참고문헌

### 한국어 문헌

#### <단행본>

강옥미(2003), 『한국어 음운론』, 대학사

신지영(2000), 『말소리의 이해』, 한국문화사

\_\_\_\_\_ (2011), 『한국어의 말소리』, 박이정

신지영·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이진호(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허용·김선정(2006), 『한국어 발음 교육론』, 박이정

#### <연구보고서>

양명희(2014),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3단계)』, 국립국어원

#### <논문>

Zhang Jian(201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분석 및 교육 내용 구성 연구: -(C)Vn', '(C)Vŋ' 음절형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ZHANG LIN (2008),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교육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강석진(2010), 「중국어와 한국어의 분절음 음운변동 대조 연구」, 『중국어학』, Vol. 36, 대한중국어학회
- 공재석(1985), 「中國語 음절에 관하여」, 『언어와 언어학』, (1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 仇美琳(2014),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대조와 발음교육 방안」, 동신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석사학위논문
- 권경근(2016), 「한국어 발음교육의 요소와 범위」,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김연이(2011), 「한국어 치조 마찰음 발음 교육 연구: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용렬(200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방안: 자음동화 현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2010), 「중국인 학습자의 자연발화 발음 오류 분석 연구」,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차균(1987), 「국어의 음적 구조와 음절핵 안에 일어나는 음운론적 과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Vol 12. No. 1[198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리우동위(2013), 「음절 구조의 차이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양상과 교육 방안」,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마려평(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음절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경래(1992), 「현대국어 모음 ‘외, 위’의 인지양상에 대한 일고찰(II) -중부방언 화자를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Vol 9 No.-[1992], 개신어문학회
- 박나영(2010), 「음소결합제약에 의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오류 연구: 초



급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전공 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박병선(2016), 「대만에서의 한국어 학습자별 교육 과정 개선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2016 No.-[2016],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박병선(2017),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한 음성/음운 이론의 응용」, 『海外韓國學 專家養成之現況與發展方案』, 政治大學韓國文化教育中心

범류(2006), 「중국어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의 “ㄹ” 발음의 길이와 포먼트에 대한 연구」, 『말소리』, (57), 대한음성학회

상성남(2012),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소배열제약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소열녕(2008), 「韓國語와 中國語 破裂音의 實驗音聲學的 對比 研究」,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손경애(2009), 「中國語圈 學習者를 위한 韓國語 發音 教育 方案에 관한 研究」,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엄익상(2013), 「표준중국어의 음절구조와 활음의 위치」, 『중국언어학연구』, (44), 한국중국어학회

왕요(2018), 「Praat를 활용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연구: 어두 장애음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이득춘(1994),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대비」, 『말소리』, (27), 대한음성학회

이선(2014),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 연구: 음소배열제약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쌍(2016), 「한국어와 중국어의 활음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해우(2003), 「현대 중국어 개음의 성격과 표기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25), 중국어문학연구회
- 장향실(2002), 「중국어 모국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시 나타나는 발음상의 오류와 그 교육 방안」, 『한국어학』, Vol 15 No.-[2002], 한국어학회
- \_\_\_\_\_(2009),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절 오류와 교육 방안」, 『우리언문연구』, Vol 34 No.-[2009], 우리언문학회
- 전상범(1980), 「Lapsus linguae의 音韻論的 解釋」, 『언어』, Vol 5. No. 2[1980], 한국언어학회
- 정명숙(2005),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억양 교육 방안」, 『한국(조선)어교육연구』, Vol 3 No.-[2005],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 \_\_\_\_\_(2011),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이중언어학』, Vol 47 No.-[2011], 이중언어학회
- 정지수·최규발(2012), 「타이완의 다언어현상과 언어정책」, 『中國學論叢』, Vol. 36 No. -[2012],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 정해연(2011), 「한·중 음절 대조 분석을 통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연구」,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가유(2012), 「한국어와 대만 민남어의 음운적 대조 연구: 음절구조, 음운체계, 음절구조 제약, 음소결합 제약, 음운변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조성문(2000), 「한국어 음절구조에 대한 고찰」, 『한국어 교육』, Vol 11. No. 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진경지(2017), 「대만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발전 연구」, 『한국언어문화』, (64), 한국어어문화학회

진월(2010),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지도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최주현(2013), 「표준중국어 활음과 음절구조」,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사이트>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중국어 문헌

#### <단행본>

王力, 1963, 《漢語音韻》, 中華書局

王洪君, 1998, 《漢語非線性音系學-漢語的音系格局與單字音》, 北京大學出版社

王理嘉, 1991, 《音系學基礎》, 語文出版社

周童春, 1990, 《漢語語音學》, 北京師範大學出版社

林燾·王理嘉, 1992, 《語音學教程》, 北京大學出版社

鄭瑞城, 2007, 《臺灣閩南語羅馬字拼音方案使用手冊》, 教育部

鍾榮富, 2015, 《華語語音及教學—新修訂版》, 正中書局

#### <논문>

- 朱曉農, 1983, 〈讀《試論普通話語音的“區別特徵”及其相互關係》〉, 《語言研究》, 1983年第2期
- 林慶勳, 1988, 〈音節結構與聲韻學教學〉, 《聲韻論叢》, (7)
- 林燕惠, 2014, 〈音節與漢語音段音系〉, 《當代語言學》, 2014年第3期
- 胡翠月, 2015, 〈漢語對中國學生學習韓語的負遷移研究〉, 《昆明學院學報》, 2014, 37(4)
- 張吉生, 2008, 〈漢語音節結構再分析〉, 《上海外國語大學學報》, 2008年第1期
- 葉軍, 2007, 〈普通話音節結構再分析—從韻律研究的角度〉, 《華東師範大學學報》, 2007年第4期
- 董忠司, 2017, 〈漢語聲韻分析論的舊觀與新猷—以音節結構與介音成分說為中心〉, 《聲韻論叢》, 第二十輯
- 潘吾云, 2014, 〈漢語音節的描寫〉, 《語言科學》, 第5卷第2期
- 錢乃榮, 1988, 〈論普通話語音的音位和區別性特徵〉, 《漢語學習》, 1988年第1期
- 鍾榮富, 2010, 〈華語的韻母結構的本質〉, 《台灣聽力語言學會雜誌》, (26)

영어 문헌

<단행본>

Duanmu, San(2007), *The Phonology of Standard Chine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J. J. Holliday(2014), *The perceptual assimilation of Korean obstruents by native Mandarin listener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35(3)

Lin, Yen-Hwei(2007), *The Sounds of Chine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